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국 근대 지식인 주작인(周作人)의 대일 인식
: 언론 기고문을 중심으로

왕미미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2024년 2월



중국 근대 지식인 주작인(周作人)의
대일 인식 : 언론 기고문을 중심으로

이 논문을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왕 미 미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지도교수 최낙진

왕미미의 언론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심사위원장

이 서 현



위 원

조 박



위 원

최 낙 진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Journalism

**Modern Chinese Intellectual Zhou
Zuoren's Awareness of Japan:
Centering on Media Contributions**

WANG WEIWEI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February 2024

목 차

I. 서론	1
1. 시대적 배경과 연구 목적	1
II. 선행 연구	4
1. 중국과 한국의 주작인에 관한 연구 현황	4
2. 주작인 선행 연구 고찰	7
1) 주작인 문화사상 연구	7
2) 주작인과 『신청년(新靑年)』 관련 연구	9
3) 주작인과 일본 관련 연구	11
III.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3
1. 연구 문제	13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4
1) 연구 대상	14
2) 연구 방법	20
IV. 연구 결과	23
1. 주작인의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입장에 대한 인식	23
1) 일본 문화 이해에 대한 인식	23
2) 일본 문화적 입장에 대한 인식	29
2. 주작인의 일본 생활 및 일본어 교육에 대한 인식	41
1) 일본 생활에 대한 인식	41
2) 일본어 교육에 대한 인식	45

3. 주작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인식	47
V. 결론	57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57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62
참고문헌	64
Abstract	66

표 목 차

<표 1> 중밀 (仲密)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글	15
<표 2> 기명 (豈明)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글	16
<표 3> 주작인 (周作人)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글	17
<표 4> 지당 (知堂)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글	18
<표5> 주작인이 발표한 대일 관련 글	19
<표6> 일본문화와 문화적 입장에 대한 인식의 글	22
<표7> 일본 사회생활과 일본어 교육에 대한 인식의 글	22
<표8> 일본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인식의 글	23

국문초록

중국 근대 지식인 주작인(周作人)의 대일 인식 : 언론 기고문을 중심으로

왕 미 미

제주대학교 대학원 언론홍보학과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짧은 기간에 봉건국가에서 근대화의 역사적 진전으로 빠르게 나아가 당시 아시아 제1의 강국으로 부상했다. 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유학생들이 대거 일본에 몰려들었고, 주작인은 일본 메이지 유신 후 초기 중국인 유학생으로 활동했다. 당시 일본의 문화, 정치, 생활 등 각 방면의 상황을 주작인의 글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근대 동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연구와 참고가치가 있다. 주작인의 초기 언론 활동은 비교적 활발했다. 주작인은 "5.4 신문화 운동" 시기 『신청년(新靑年)』 편집에 참여했고, 임어당(林語堂)등과 함께 『어사(語絲)』 주간을 창간하는 등 일부 언론 활동을 했다. 그러나 주작인의 언론 활동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직 없다. 또한 그간 주작인의 친일 연구에서는 그의 일본 문화에 대한 입장과 정치적 입장 사이에 모호한 문제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주작인이 신문에 발표한 일본 관련 글을 연구 대상으로 수집하여 일본의 문화, 의식주, 일본어 교육에 대한 주작인의 인식을 연구했다. 주작인의 일본에 대한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는 일본문화 이해에 대한 인식이다. 시는 일본에서 보편적이고, 지극히 짧기 때문에 일반인도 시를 지을 정도라고 보았다. 일본의 하이쿠는 짧고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시의 언어 이외의 의미를 표현한다. 익살스러운 문체는 일본 특유의 소설 문체로, 일본 스스로 이런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문체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일본 문학작품은 원문을 감상할 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중국어로 번역하면 본래의 특색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본 문학 번역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 표현하고 있다. 우키요에는 중국 고대에서 유래했지만 일본만의 회화 예술로 발전했고, 우키요에의 특징은 화려하고 주로 서민적인 문화를 담았다고 표현했다.

생활에 대한 인식은 도쿄 생활에 대한 추억과 일본의 의식주에 대한 소감으로 표현된다. 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면, 일본에서의 생활에 대한 인식과 문화 간의 관계가 조화로우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일본어 교육의 경우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전문학과의 설립과 일본 유학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작인의 일본 문화에 대한 긍정과 일본어 공부에 대한 그의 태도가 유화적으로 보이게 한다.

본 연구는 주작인의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을 시간적 선후로 분리하여 연구한 결과에 따라 1919년부터 1937년까지 일본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했고 일본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배척하였다. 1937년 일본에 대한 자신의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을 분리했다. 1940년부터 1943년까지 문화적인 입장은 여전히 독립을 유지했지만, 1940년에 정치적 입장이 친일로 바뀌었다.

주작인의 일본 문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일본 문화가 중국 근대 문화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주작인은 신문을 통해 당시 진보적인 지식인과 청년들에게 그의 일본 문화관을 전달하고 아시아 문화와 문화 교류의 발전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일본 문화에 대한 인정에는 주작인의 문화관과 정치관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문화가 정치의 근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그 사이의 모순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주작인의 언론활동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여 주작인의 연구의 다원화 폭을 넓히고 주작인의 연구에 더 많은 연구 시각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는 중국·한국 등 동아시아의 근대 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 연구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당시의 근대 지식인들이 언론활동에 담고 있는 일본 문화상을 고찰해야 한다. 동아시아 문화의 근대적 발전과 문화교류의 다원화는 앞으로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주제어: 근대 지식인, 일본 문화, 친일, 메이지 유신, 『신청년(新靑年)』

I. 서론

1.1 시대적 배경과 연구 목적

주작인은 중국 현대에 유명한 수필가·사상가로 번역에도 뛰어난 업적을 남겼다. “5·4신문화 운동”의 걸출한 대표 중 한 명이다. 주작인의 문학관은 중국 현대 문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초기에는 많은 문인들과 언론인들과 함께 잡지 신문의 편집과 창간에 참여했었다. 1920년대 주작인은 신문화운동에 힘써 국민사상을 계몽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에는 친일 문제로 문화계에서 은퇴했다. 1980년대까지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상해방운동이 계속 심화되면서 주작인의 연구는 다시 대중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학계에서 주작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주작인의 문학적 성취, 문학사상, 여성관, 아동관, 주작인의 일본 관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뤄졌다. 주작인의 친일 연구를 포함한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있다. 언론 연구는 거의 『신청년(新靑年)』, 『어사(語絲)』 등을 연구 대상으로 했을 때 주작인의 공헌과 업적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 주작인의 신문 활동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현재 거의 공백 상태이며 연구할 여지가 여전히 많다.

본 논문은 주작인이 1919~1943년 신문에 발표한 일본과 관련된 글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문화, 일본의 생활, 그리고 일본의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주작인의 인식을 고찰한다. 본 연구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기 전후이다. 일본은 이른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조선반도를 식민통치한 데 이어 중국을 침략했다. 전후 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남아 지역을 침공했다. 이 전쟁에서 중국과 조선은 가장 큰 피해를 받았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당시 동아시아 경제, 군사 등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급부상했고, 당시 중국과 조선의 지식인들이 대거 일본 유학 붐을 일으켰다.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 문화는 서양 문화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이라는 다리를 통해 선진 서양 문화를 배우고 싶어 했다. 주작인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주작인의 형은 중국 근대문학사에서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노신(魯迅)이다. 그와 형 노신(魯迅)이 일본에 유학한 목적은 서양 문화를 배우고 신문화운동을 통해 국민사상을 계몽하려는 것이었다. 주작인은 1906년에서 1911년 사이에 일본에서 유학했다. 이 무렵은 청나라 말기에 주씨 형제는 당시 중국인의 자각과 정신을 문학을 통해 일깨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黃開發, 2004).

청나라 말기 중국은 지속적인 쇠퇴기에 있었고, 당시 사회에는 여자가 “전족(纏足)”하고 남자가 머리를 길게 땅는 등 많은 폐습이 있었다.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일부 지식인들은 이를 혐오했고, 문학을 통해 국민의 사상을 계몽하려는 욕구가 간절했다.

그러나 이들이 직면한 시대적 배경은 모순이다. 중국이 자신들이 유학했던 일본에 의해 침탈과 식민지를 당한 것이다. 그 결과 일부 지식인들은 일본에 대해 “친일” 또는 “배일(排日)”이라는 상반된 태도를 갖게 되었다. 주작인은 일찍이 “배일”을 극구 고취한 뒤 “친일” 진영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는 특수한 역사시대를 배경으로 성장한 문학가로 근대문학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시대적 배경은 그를 친일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하여 논란이 많은 일생을 살게 했다. 중국 대중들의 시야에서 주작인의 이미지를 언급하면 “문화 매국노”¹⁾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그렇다고 그가 중국 근대문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작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도 연구 가치가 크다고 본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양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다. 이 시기 일본은 연구 가치가 크다. 주작인의 이 시기 일본에 대한 인식에서 독특한 견해를 엿볼 수 있다.

주작인의 연구에 관해서는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작인은 어린 시절부터 전통적인 한학 교육을 받았다. 1906년 일본에 도착하여 일본어를 공부한 후 해군기술을 익혀 외국어를 공부하였다. 건축(토목공학)을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출국해 일본 호세이 대학 예과를 거쳐 도쿄 릿쿄 대학에 입학해 그리스어를 수학하고 『원정기(遠征記)²⁾』 등 문학 경전을 탐독했다. 또 주작인은 일본에서 러시

1) 1945년 12월, 주작인은 북평에서 “매국노”라는 죄목으로 장개석(蔣介石)가 주정한 국민 정부에 체포되었다.

아어, 산스크리트어 등을 잠시 공부하기도 했다. 주작인의 언어 학습에 대한 관심의 광범성에서 그의 문화관이 다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5·4신문화운동” 때인 1919년 주작인(周作人)과 천두슈(陳獨秀), 리대조(李大釗), 후스(胡适), 노신(魯迅) 등이 『신청년(新青年)』과 『주간평론(周刊評論)』의 편집에 참여했다. 그해 10월 주작인(周作人)은 월간지 『신조(新潮)』 편집주임을 맡는다. 1919년 주작인과 천두슈(陳獨秀), 리대조(李大釗), 후스(胡适), 노신(魯迅) 등이 『신청년(新青年)』과 『주간평론(周刊評論)』의 편집에 참여하고, 그해 10월 주작인은 월간지 『신조(新潮)』 편집주임을 맡아 1924년 겨울 임어당(林語堂) 등과 함께 주간 『어사(語絲)』를 창간했다. 1930년 8월 주작인이 창간한 『낙타초(駱駝草)』는 문학지로 소설·시·문학평론 등을 실었다.

1939년 이후 주작인은 왕정위(汪精衛)의 난징(南京) 일본 괴뢰정부 소속 국립 베이징대학에서 도서관장직을 맡기 시작했고, 1941년 10월부터는 “동아시아문화협회” 의원회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1944년 5월부터 『화북신보(華北新報)』의 지배인, 보도협회 이사, 중일문화협회 이사를 겸임했다. 1945년 12월, 항전이 끝난 후 북평에서 “한간(漢奸)” 죄목으로 장개석(蔣介石)의 국민 정부에 체포된다.³⁾

일부 선행 연구가 주작인의 일본에 대한 문화관을 연구하면서, 20년대 일본 정치를 비판한 글을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으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주작인은 이 기간 동안 일본에 대해 저항과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한다. 일본의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양상을 보였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주작인이 일본의 문화에 대해 일종의 편집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 침략을 무시하다는 극단적인 관점이 있다. 1930년대 이후에도 주작인의 일본 정치비판은 여전했지만, 다만 1920년대 시기에 비해 많이 누그러졌을 뿐이며, 그동안의 대량의 일본 문화 긍정적인 글은 당시 사회로 하여금 “친일”, “문화적 매국노”라는 오명을 받게 했다. 총격 사건까지 당했다.⁴⁾ 이러한 문제는 후세에 주작인의 일본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연구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문화에 대한 그의 인식, 일본의 생활과 일본어 교

2) 『원정기(遠征記)』 소크라테스의 학생 시노펜의 저서

3) 百度百科 : <https://baike.baidu.com>

4) 1939년 1월 주작인은 자신을 학생라고 소개한 사람의 방문을 요청받고 도중에 갑자기 총을 쏘고 총알이 구리 단추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일본의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개인적 견해가 무엇 인지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주작인은 문학 영역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 언론 활동에서의 경험을 소홀히 하기 쉽다. "5·4신문화운동"은 『신청년(新靑年)』 지를 중심으로 한 반제국주의 반봉건 운동이다. 주작인의 『신청년(新靑年)』 활동은 신문학 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작인과 임어당(林語堂), 노신(魯迅) 등이 창간한 『어사(語絲)』 주간지도 자유사상을 제창하고 문학창작과 예술사상을 소개하고 연구한다. 또 주작인이 만든 『낙타초(駱駝草)』도 문화사상의 자유를 전파하는 『어사(語絲)』의 이념을 계승한 것이다. 이들 신문과 주간지는 당시 사회에 신문화운동의 사조를 일으켰다. 당시 진보적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의 신문화 사상을 신문을 통하여 국민을 계몽했다. 이 시기 주작인의 언론 활동과 사상은 매우 연구 가치가 있었다. 주작인에 대한 연구는 문학가나 "친일파"뿐만이 아니라 주작인이 중국 신문 발전사에서 기여한 공적을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 비록 그가 일본 관련 글을 모아 연구한 것이 전부지만 주작인이 신문과 잡지의 창간과 편집에 일찍부터 참여했고, 후기에 계속 신문에 실린 수많은 글들은 모두 연구 가치가 크다고 알 수 있다.

II. 선행 연구

1. 중국과 한국의 주작인에 관한 연구 현황

2023년 현재 주작인 연구는 중국 인터넷 논문 학술지 총고에는 6,459편이 있다. 이 중 학술지는 4,919편이다. 학위논문은 박사논문 149편, 석사논문 508편으로 총 657편이다. 주작인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 논문은 2,700편이다. 이처럼 주작인 연구는 중국 학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줄곧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1월 1일 중국 인터넷 논문 학술지 "인문역사과 학술논문 출판 총고"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9년까지 주작인을 키워드로 한 글 4082건 있고 "주작인"으로 한 글 973편이 게재되었다. 또 각각 주작인과 관련이 있는

“지당 (知堂)”, “고우재 (苦雨齋)”, “주씨형제(周氏兄弟)”라는 제목으로 검색하여 99편을 찾아냈다. 그래서 실제로 “주작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총 1,072건이다 (黃開發,2011). 이 시기에는 주작인 연구 전문서 25부가 쏟아져 나왔는데 비록 보편적인 저작도 있고 작품성도 천차만별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주작인 연구의 새로운 성과를 집중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작인 사상연구가 이론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다(黃開發, 2011). 주작인 연구 관련 서적 중에는 전리군 (錢理群)의 저서 『주작인전(周作人傳)』이 있다.⁵⁾는 주작인의 사상을 현재의 사회문화에 접목하여 새로운 의미를 발굴한 것이다. 예묵염(倪墨炎) 『중국의 반역자와 은사: 주작인 (中國的叛逆者和隱士: 周作人)』⁶⁾ 슈우(舒芙) 『주작인의 시비공과(周作人的是非功過)』⁷⁾ 류서원(劉緒源) 『해독주작인 (解讀周作人)』⁸⁾ 황개발 (黃開發) 『인간여로-주작인의 사상과 문체 (人間旅途-周作人的思想和文体)』⁹⁾등을 저서들이 있다. 주작인의 철학적 관점에서 주작인의 사상과 문학을 연구한 것이다.

주작인 한국에서의 연구는 2023년까지 전체 사이트 154편이 있고 주로 KCI와 KISS, DBPI에 찾을 수 있다. KCI 63편, KISS 48편, DBPI 19편이다. 중복된 정보 및 기타 연구를 제외하고 실제 주작인 연구는 85편이다. 한국의 주작인 연구는 주로 문화연구, 주작인의 사상연구, 주작인과 형 노신(魯迅) 두 사람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그 뒤를 이어 주작인의 아동관과 종교사상, 그리고 번역가로서 기여와 민속관에 대한 연구도 소량 이루어졌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주작인의 문화 연구는 47편으로 주작인의 산문과 기타 문학작품을 주로 다루고 있다. 주작인의 문화사상 연구는 14편, 주작인과 노신 형제의 연구는 7편으로 주로 주씨 형제의 불화와 문화 방면의 비교 연구를 고찰한다. 주작인의 아동문화 관 연구는 5편, 번역분야 기여연구 4편, 민속연구 4편, 종교연구 3편이다. 주작인의 언론 활동이 주요 연구 대상이었던 논문은 아직 공백 상태지만 주작인의 문

5) 『주작인전(周作人傳)』 錢理群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90

6) 『중국의 반역자와 은사: 주작인 (中國的叛逆者和隱士: 周作人)』 倪墨炎 上海文藝出版社 1990

7) 『주작인의 시비공과 (周作人的是非功過)』 舒芙 人民出版社 1993

8) 『해독주작인 (解讀周作人)』 劉緒源 上海文藝出版社 1994

9) 『인간여로-주작인의 사상과 문체 (人間旅途-周作人的思想和文体)』 黃開發 人民文學出版社, 1999年.

화 연구와 여성관 연구에서 각각 『어사(語絲)』와 『신청년(新靑年)』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2편이 있다. 주작인은 일본 관련 연구 한 편 밖에 없다.

주작인의 한국 연구는 <한국 내 주작인의 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작인의 “5·4 문화운동” 시기 문학과 주작인의 “매국노” 지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고찰하려 하고 있으며, 주작인의 한국 내 각종 연구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친일은 큰 오점을 남겼지만 80, 90년대 다시 불붙은 “주작인풍”이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와 사상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千大珍, 2012). 『어사(語絲)』를 연구 대상으로 한 글에서는 1924년 노신(魯迅)과 주작인 등이 발간한 잡지 『어사(語絲)』를 언급하며 1920년대 중국에 대한 문화 관념을 비판적 시각과 “문화 기억”의 방법과 양식으로 재현했다. 초기 『어사(語絲)』에서 노신(魯迅)과 주작인의 산문에서 언급한 “장소기억”을 통해 그들이 1920년대 시기에 보여준 지식체계를 분석하고, 중국의 문화기억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고민하였다(천진, 2011). 주작인은 일본 작가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의 『정조론(貞操論)』에 나타난 여성관을 연구하였다. 글에서 『신청년(新靑年)』을 연구중심으로 하고, 주작인은 『신청년(新靑年)』 제4권 제5호에 『정조론(貞操論)』을 번역 게재하여 여성문제의 맹아, 확대, 여성해방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중국 내 여성문제에 대한 여론의 작용을 다시 불러일으켜 근대 중국 여성 해방문제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였다(황선미, 2013). 주작인의 일본 관련 연구도 한 편 있다. “5·4문화”시기와 중일전쟁 전후 시기의 주작인의 일본문화 연구를 고찰하고 비판하였다. 중국의 민족 존립 위기에 처한 주작인의 일본 연구는 처음부터 그의 의도대로 중국 대중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주작인의 비극은 시종일관 문화와 사상의 건설과 비판의 힘을 확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달라진 현실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진 자신의 연구는 건설적인 비판에도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자폐적이고 비사회적인 행위임을 그 자신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김미정, 2001).

대량의 선행연구를 통해 주작인의 연구는 중국학계에서 이미 비교적 성숙한 연구에 속함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주작인의 문학사상 문학작품과 문화관이다. 문화관에는 주작인의 영향은 유럽문화인 그리스문화와 일본문화가 포함되어있다. 주작인의 친일에 대한 연구도 많다. 주작인의 친일 원인도

비교적 관심의 화두가 되어 많은 학자들이 주작인의 문화사상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역사적 사건의 사실을 종합해 분석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주작인 관련 연구들은 여전히 모호하고 포괄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주작인의 친일 연구에서 일본에 대한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 사이의 모호한 문제이다. 주작인의 생활미학과 그가 『신청년(新靑年)』 『어사(語絲)』 등 잡지·신문 활동에 대해서도 연구했지만, 『신청년(新靑年)』에 대한 연구 때 주작인의 업적을 언급했을 뿐이다. 주작인에 대한 견해는 모두 문학가의 인식에 머물러 있지만, 주작인이 근대 신문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매우 연구할 가치가 있고, 언론 활동에 집중하여 주작인을 연구하는 이 연구는 아직 백지상태이다.

2. 주작인 선행 연구 고찰

1) 주작인 문화사상 연구

주작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그의 문학 사상적인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당대 문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주작인의 문화관은 자유, 미에 대한 감각, 미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당대 문학에는 그의 심미적 분위기는 갈수록 무거워짐을 사람들이 암시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주는 문화인들은 그의 생각을 추종하고 있다(孫郁, 2001). 사실 1945년 이후 그는 문단에서 사라졌고, “매국노”의 죄로 주작인 문학풍은 사회의 변방으로 사라졌다. 주작인의 문학관은 일본 유학 시기와 “5·4문화혁명” 전기, 20·30년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몇 시기 동안 그 문학관은 모두 “공리주의(功利主義)”와 대립, 의존, 대화의 복잡한 관계가 있었다(黃開發, 2004).

주작인의 일본 유학은 시절 청나라 말기(晚淸)시대였고, 당시 나라 사람들의 각오와 정신 주씨 형제는 문학으로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과학적, 도덕적 분치의 현대적 지식제도상의 문학관념과 “비공리(非功利)”적 미학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공리주의”방식을 추구하지 않았다(黃開發, 2004). 주

작인은 당시 유행하던 “공리주의(功利主義)”에 대한 문학관념을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5·4신문화운동” 때의 창도자들은 청나라 말기 일련의 개혁과 구국운동의 실패를 목격하고, 문학이 국민의 사상을 계몽하는 데 가장 유리한 도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상혁명 차원에서 문학혁명을 요구했고, 문학 자체의 독립성과 특성을 무시했다. 주작인은 비록 “5·4신문화운동” 시기에 “공리주의”의 경향을 보였지만, 문학혁명의 주요 창도자 중에서, 그는 문학 독립성을 항상 유지하는데 주의를 기울인 유일한 비평가였다(黃開發,2004) . 1920년 1월, 주작인은 “북평소년 학회”에서 “신(新) 문학의 요구”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생파(人生派)”의 공리주의적 경향에 대해 경고하고 자신의 선택을 하였다. 주작인 1920-30년대는 순수한 예술적 성향이 강해 “공리화(功利化) 와 대립했다(胡有淸, 1997). 1923년을 전후하여 곽말약(郭沫若), 마오둔(矛盾), 노신(魯迅)등은 작가의 개성이 반드시 시대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작가의 주관적 표현은 시대와 인민의 외침과 고도로 통일되어야 만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고 보았다(金紅,1998). 노신(魯迅) 등에 비해 주작인은 단편적으로 개성을 강조하여 작가의 주관적 의지를 객관적 묘사 위에 놓았는데, 이러한 그의 순수한 자기표현의 문학관은 시대의 요구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金紅,1998). 그의 문학관 퇴행적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다.

조경화(趙京華,1989)는 『정신적 보수의 터전을 찾다(尋找精神家園)』라는 책에서 주작인을 호스(胡适)과 함께 “온건한 보수주의”의 대표주자로 꼽았다. 조경화(趙京華)는 : “5·4 민주 정신을 고수하며 서양 문화의 유입에 노력하였고, 전통문화에 긍정적이어서 두 문화의 재통합을 지향하였으며, 이성적으로는 서양을 끌어안고 전통문화에 정서적으로 동정하여 연연하였다”고 말했다. 현대 의식과 세계의 시야를 잊지 않으면서도 전통 사대부의 정신적 기질을 버지 못하고 중국 사회정치에 열심이었으나, 역사에 대한 우환과 현실에 대한 실망으로 정치를 소외시키다가 영문도 모른 채 복잡한 정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¹⁰⁾ “5·4운동”후, 주작인에게서 발단된 개인주의 사상은 더욱 두드러져, 1927년 이후의 혁명 문학도 더 이상 개성의 해방이 문학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문학은 어떤 정치 집단의 이념을 담는 도구가 되었으며, 이때 양자의 균형점은 이미 존재하지 않게

10) 趙京華 《尋找精神家園》 1989年 中國人民大學出版社

되었다 (張森, 2012) .

2) 주작인과 『신청년(新靑年)』 관련 연구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노신을 연구하면서도 주작인을 연구한다. 주작인이 언론 활동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노신(魯迅), 진독수(陳獨秀), 이대조(李大釗), 후스(胡适) 등과 함께 『신청년』지의 편집활동에 참여했을 때 이다(歐陽哲生, 2009) . 중국 인터넷 학술지에서 주작인의 『신청년』 키워드에 대한 연구논문이 45편이나 있다. 주작인의 『신청년(新靑年)』 활동은 신문학 운동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5.4신문화운동”은 중국 근대사에서 철저한 반제국주의 반봉건 혁명운동으로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시초를 상징한다. 주작인은 이 운동의 주역이었다. 『신청년(新靑年)』지는 신문화 운동에서 주작인의 문화 사상과 언론활동의 의의에 중요한 참고 가치를 지닌다.

“5.4신문화운동” 때 외국 문학 번역이 유행했고, 『신청년(新靑年)』은 유럽 명작으로 민중을 계몽하기 시작했다. 『신청년(新靑年)』의 번역에 대하여 말하자면, 진독수(陳獨秀)가 처음으로 풍조를 개화하여 후스(胡适)가 백화문학 번역의 주체를 세웠다면, 주씨 형제는 후스(胡适)보다 훨씬 더 크게 진보하였다. 번역 대상에서는 “약소한” 민족문학과 러시아문학에 치중하였으며, 방법에서는 “직접 번역”을 제창하였는데, 이것들은 후에 중국 신 문학 번역의 주류가 되었다(趙稀方, 2013) . 번역문학사적 관점에서 보면 『신청년(新靑年)』은 중국 번역문학사상 최초로 목적이 있고 계획적으로 백화(白話)로 번역하여 새로운 사조를 전파하기 위해 신 문학을 제창하는 번역의 기반이다(劉獻彪, 1989) . 이 시기 지식인의 관심은 대중 계몽뿐만 아니라 봉건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사상 문화 혁명에 집중되어 새로운 시대의 아동관과 여성관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신청년(新靑年)』에서 주작인의 여성관과 아동관은 그 인도주의 사상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이며, 그의 인도주의적 배려는 그 인도주의 사상의 심화 정도를 나타냈다(袁滢珍, 2015).

『신청년(新靑年)』은 “아동본위¹¹⁾(兒童本位)”의 관념구축에 대한 열정은 다

른 언론에서도 이 화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당시 선진지였던 『조간신문부간(晨刊新聞副刊)』 『신조(新潮)』 『주간평론(周刊評論)』 『신교육(新教育)』 등은 『신청년(新靑年)』의 계발 아래 현대 아동관과 아동문학관 구축에 직접 참여하였다 (王黎君, 2010). 1920년 10월 26일 주작인은 역사적인 북경의 공덕학교에서 <아동의 문학>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는데, 연설문은 바로 『신청년(新靑年)』 제8권 제4호에 실렸다(王黎君, 2010). 주작인은 새로운 아동관에 기념비적인 공헌을 했고, 『신청년(新靑年)』지는 이러한 새로운 관념을 처음으로 전파하여 현대적 아동관 구축에 참여하였다. 『신청년(新靑年)』은 여성 문제를 중시했지만 당시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여성 문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룹에도 여성 3인칭 대명사 “그녀(她)”를 만든 『신청년(新靑年)』은 그동안 한자에 여성만의 3인칭 대명사가 없었다. “그녀”자의 창시자는 유반농(劉半農)이며, 이를 공개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주작인이었다(陳方競, 2011). 먼저 “여자 문제”에 대한 사고를 깊이 끌어낸 것은 주작인이 번역한 일본인 요사노 아키코(與謝野晶子)의 『정조론(貞操論)』이다(陳方競, 2011). 『신청년(新靑年)』은 창간할 때 하나의 사상 잡지로, 바로 진독수(陳獨秀)의 경영 특히 잡지가 북경으로 이전한 이후, 마침 “5·4운동”을 맞이하여 명성이 자자했는데, 그 중에는 주씨 형제의 공로도 있었기 때문이다. 노신(魯迅)과 주작인의 실천으로 인해, 비로소 정치론에 치중한 이 사상 잡지를 정치론 사상에 문학을 더한 종합 잡지로 바꾸어 놓았다 (張鐵榮, 2019). 주씨 형제의 합류로 『신청년(新靑年)』잡지는 청년 독자를 늘려 영향력을 키웠다. 주작인은 한편으로 동서양 문명의 진보된 새로운 도덕을 전파하며, 낡은 도덕의 추함을 질책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혁명의 이론 건설에 치중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상 혁명의 내용, 특히 서양 인도주의 정신을 문학혁명의 사상이론 속에 주입함으로써 『신청년(新靑年)』이 제창하는 문학혁명의 함의가 더욱 풍부하고 더욱 현실적인 비판성을 가지게 되었다(何玲華, 2004).

11) 아동본위(theory of children as standard for education) 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본성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주작인과 일본 관련 연구

주작인의 일본에 대한 입장에 관한 연구에서, 한 연구는 중일 시국의 변화와 그 자신의 사상의 변화로 인해, 일본에 대한 비판에서 모호하고 애매한 문화 고찰로 변해갔다고 지적하였다. 주작인이 1920년대 중반 “배일론(排日論)”을 대거 발표하던 시기는 민족주의가 그의 사상에서 상위를 차지하던 시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배일론”과 같은 급진적 민족주의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許憲國, 2006). 1930년대 중일 관계의 긴장은 주작인의 개인 생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었고, 중국 정국에 대한 실망과 함께 중국의 실패한 운명을 보는 듯했던 상황에서 자신의 운명을 다소 고려해야 했던 그의 “개인주의” “민족주의”는 이 환경 속에서 서서히 해소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급진적으로 민족주의적 “배일” 주장을 펴지 않고 훨씬 평화로운 문화비평으로 대체했다(許憲國, 2006). 1925년을 전후하여 주작인은 일본의 중국 침략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날카롭게 폭로하고 반박하였다. 1927년 발표된 <배일평의(排日平議)>에서 따끔한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는 북평(北平) 함락 이후 괴뢰정부 직책을 맡아 “친일파”라는 비난을 받았다. 주작인은 일본 문화에 대해 다소 편집적이고 공감하는 모습을 『일본의 관규지견(日本管窺)』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주작인이 일본 문화를 편드는 또 다른 표현은, 일본 무력이 일본 문화를 빌려 침략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씻기 위해서, 그는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침략을 하나의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것이다(汪注, 2010) .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당시 중국과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의 유학 붐이 일어났다. 그들은 일본이 중국의 전통 문화를 보존한 국가이며, 동시에 서양의 선진 문명을 흡수했다고 생각한다.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을 통해 서양의 문화를 볼 수 있다. 이 두 문화관에는 일본 문화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이나 서양 문화의 부속물로 보는 결함이 있다. 주작인은 이 점에 있어서 시종 매우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고 있다(于小植, 2009). 그는 일본 고급의 문화는 물론 중국과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나, 외래의 영향이 이미 자신의 것으로 동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고유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독립의 의미와 독립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주작인은 일본문

화 중의 “인간미”가 풍부한 일면, 속세의 일면, 이른바 “국화”¹²⁾의 일면을 감상하고 있지만, 일본 문화 중의 군국주의의 일면, 이른바 칼의 일면에는 관심도 없고 비판의식도 부족하다(于小植,2009).

중국의 문학가들 중에 주작인처럼 일본 및 일본 문화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木山英雄, 劉軍, 2003). 주작인의 민족의식은 일종의 민족적 자기비판, 혹은 그가 말한 “자기비판”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노신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또한 이 점은 주작인의 일본 문화에 대한 개성적인 애착을 더욱 심화시켰다(木山英雄, 劉軍, 2003). 주작인은 부녀자의 “부녀전족 (婦女纏足)”, “환관 (宦宦)”, “팔주문(八股文)”¹³⁾ 등 중국 문화의 폐해를 증오해 왔다. 그가 일본 문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주작인은 일본문화의 심층적인 것을 깊이 발굴하여 일본 민족 문화적 성격의 특수성과 독립적 가치를 밝히고, 평생 일본문화에 대한 깊은 연구와 독특한 이해를 설명하였으며, 그의 독특한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주로 일본문화적 성격과 일본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성적인 인식에 있다(劉偉, 柴紅梅, 2003). 평생을 일본을 연구하며 중·일 문화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인물로, 주작인의 글에서 일본의 복잡한 다면성을 엿볼 수 있다. 주작인의 글에서, 일본 음식은 그러한 “담백한 질”, 일상생활 이외에, 주작인은 청결하고, 합리적이며, 소탈한 생활 습관을 매우 좋아한다(孫良好, 孫鵬程, 2014). 주작인의 작품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의 의식주에 대한 애착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본 민족은 슬픔과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여겼는데, 이러한 심미관은 에도시대의 서민적인 문학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에도시대의 작가를 여러 차례 언급한 주작인은 이 시기의 문학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孫良好, 孫鵬程, 2014).

대량의 선행연구를 통해 주작인의 연구는 중국학계에서 이미 비교적 성숙한 연구에 속함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주작인의 문학사상 문학작품과 문화관이며, 문화관에는 유럽문화인 그리스문화와 일본문화가 주작인의 영향을 포함한다. 주작인의 친일에 대한 연구도 많다. 주작인의 친일 원인도 비교

12) 국화는 중국전통문화 중에서는 순수하고 진실된 군자와 문인을 상징한다.

13) “팔주문”(八股文): (Stereotyped Writing; Eight-Legged Essay)는 명나라 청나라의 과거시험의 한 문체이다.

적 관심의 화두가 되어 많은 학자들이 주작인의 문화사상관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려고 한다. 역사적 사건의 사실을 종합해 분석하는 학자도 있다. 이러한 연구를 이해한 결과 이 문제는 여전히 모호하고 포괄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작인의 생활미학과 그가 『신천년(新靑年)』 『어사(語絲)』 등 잡지·신문 활동에서도 연구했지만, 『신천년(新靑年)』에 대한 연구 때 주작인의 업적을 언급했을 뿐이다. 주작인에 대한 견해는 모두 문학가의 인식에 머물러 있지만, 주작인이 근대 신문의 발전에 기여한 것은 매우 연구할 가치가 있고, 신문 잡지에 집중하여 주작인을 연구하는 이 연구는 아직 백지상태이다.

Ⅲ.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주작인이 언론에 게재한 일본 관련 글과 실시간 평론을 모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 글들은 모두 주작인 본인이 당시 실생활에 대해 느꼈던 감정과 생각들이다. 주작인의 유학 기간은 1906년부터 1911년까지다. 이 글에서 수집된 최초의 글은 1919년 <일본여행의 잡다한 감상(游日本雜感)>이며, 이후 1923년 <일본의 소시(日本的小詩)> 3편이 더 발표됐다. 1920년대 <일본 낭인과 순천시보(日本浪人和順天時報)>, <일본인의 은혜(日本人的恩惠)>, <일본은 중국의 적이다(日本是中國의仇敵)> 등 일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1930년대 중후반의 일본문화에 대한 고찰은 <일본의 관규지견(日本管窺)> 4편, <일본의 재인식(日本之再認識)> <일본문화 책을 이야기하다(談日本文化書)> 2편 등이다. 이 글들은 모두 그가 귀국한 후에 발표한 것이다. 유학을 다녀온 주작인은 일본의 문화와 사회생활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글을 썼다. 따라서 주작인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문화론 외에도 일본 유학 중 생활 체험, 일본어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1920년대 일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적 글을 많이 발표했던 주작인이 1930년대에는 이러한 급진적 민족주의가 많이 수그러들고 온건한 문화

고찰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주작인은 이 두 시기에 사상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는 연구가 많다. 두 시기 모두 “애국관”의 변화를 겪으면서 정부 의미인 국가에 대한 회의와 소외가 지속됐다는 연구도 있다.

주작인은 이미 1925년 스스로가 “배일(排日)”과 “친일(親日)”의 가능성이 있다고¹⁴⁾ 밝혔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일은 일본문화와 가깝고 배일은 일제의 침략을 배척하는 것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에서 양자의 관계가 모호하게 나타나는데 주작인의 친일을 정치적 입장과 혼동하다. 30년대 후반 주작인이 일본 문화에 대한 고찰을 많이 발표한 것도 친일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두 시기의 주작인이 일본의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에 대해 연구하고 비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은 주작인의 시기별 일본에 대한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분석도 연구 문제이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 문제 1) 주작인의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입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2) 주작인의 일본 생활 및 일본어 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3) 주작인의 일본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글은 주작인의 신문 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각 시기에 발표한 신문의 상황을 글을 정리하였다. 다음은 구체적인 일본 관련 기사의 발표 상황으로 시간 전후 순서에 따라 표1-4에 나타난 데이터의 통계에 따르면 주작인은 1908년부터 1945년까지 각각 1515편의 글을 신문에 발표했으며, 그 중 일본에 대한

14) “귀여운 것은 사랑하고 미운 것은 밟다. 친일이든 일본을 배척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 <어사(語絲) 1925년 51호>

인식과 관련된 글은 31편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했다. 각각 지당(知堂)·중밀(仲密)·기명(淸明)·주작인(周作人) 네 개 명칭을 사용했다. 이 글의 수집 근거는 각 신문에 게재된 모든 글의 제목에 일본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것을 수집 기준으로 하고, 각 신문사가 홈페이지에 집계한 총 문장 수에서 일본 관련 글을 추출하는 것이다.

<표 1> 중밀(仲密)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글

투고 사용명	투고 신문	연도	편수	대일 관련 기사
仲密(중밀)	조간부간(晨報副刊)	1921-1922	66	
	민국일보(각오)(民國日報·覺悟)	1921-1922	27	
	주간평론(周刊評論)	1919	12	
	여성잡지(상하이)(女性雜誌·上海)	1921-1922	7	
	신청년(新靑年)	1919-1921	6	
	북양화보(北洋畫報)	1934	5	
	우성(郵聲)	1928	3	
	소설월간(小說月刊)	1922	3	
	신조(新潮)	1917	2	
	민보(民報)	1908	1	
	10		132	0

1908년부터 1934년까지 10개 신문에 132편의 기사가 실렸으나 일본에 관한 글은 없었다.

<표 2> 기명 (豈明)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글

투고 사용명	투고 신문	연도	편수	대일 관련 기사
豈明(기명)	어사 (語絲)	1925-1929	183	3
	낙타초 (駱駝草)	1930	19	
	경보부간 (京報副刊)	1925-1926	11	3
	신중화보 부간 (新中華報副刊)	1928	7	
	북신(北新)	1926-1928	6	
	인세간 (人世間)	1934	5	
	변책주간 (鞭策周刊)	1932-1933	3	
	천진익세보 부간 (天津益世報副刊)	1929	2	
	동방잡지 (東方雜誌)	1932	2	
	조간부간 (晨報副刊)	1926	2	
	신여성 (新女性)	1926-1928	2	
	청년계 (青年界)	1931-1934	2	
	삭풍 (朔風)	1930	1	
	신학생 (新學生)	1931	1	
	국민신보 부간 (國民新報副刊)	1926	1	1
	독립평론 (獨立評論)	1934	1	
	16		248	7

1925년부터 1934년까지 16개 신문에 248편의 글이 실렸으며, 이 중 일본 관련 글은 모두 7편이었다. 이 중 『어사(語絲)』¹⁵⁾ 3편 『경보부간(京報副刊)』¹⁶⁾ 3편과 『국민신보 부간(國民新報副刊)』¹⁷⁾ 1편에 실려 있다.

- 15) 『어사 (語絲)』 1924년에 창간되어 노신등이 발기하여 1924년 11월 17일에 제1호가 발행되었다. 1924년 11월 17일부터 1927년 10월 22일까지의 제1호부터 제156호까지는 주작인이 편집하였다. 1930년 3월 10일 폐간되었다.
- 16) 『경보부간 (京報副刊)』 “5·4”시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신문부간으로 1924년 12월 5일 창간되어 일출호(日出號)가 되었고, 1926년 4월 24일 《경보》가 장작림(張作林)에 의해 폐쇄되어 폐간될 때까지 총 477호가 나왔다.
- 17) 『국민신보 부간 (國民新報副刊)』 베이징에서 창간되었으며, 창간 날짜는 알 수 없으며 1926년 3월 현재 106호가 발행되었다. 이 잡지에 실린 내용은 시사 정치 평론, 세계 정세, 마르크스주의 사상·교육·문화 등 방면의 내용을 담고 있다.

<표 3> 주작인 (周作人)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글

투고 사용명	투고 신문	연도	편수	대일 관련 기사
周作人 (주작인)	화북 정무위원회 공보(華北政務委員會公報)	1941-1943	654	
	신청년 (新青年)	1918-1921	115	1
	어사 (語絲)	1924-1929	34	1
	베이징대학일간지 (北京大學日刊)	1918-1923	23	
	청년계 (青年界)	1933-1937	23	1
	소설월간 (小說月刊)	1921-1925	23	1
	조간부간 (晨報副刊)	1922-1926	19	3
	시 (詩)	1922-1923	15	
	소흥교육지 (紹興教育雜誌)	1915-1917	13	
	민국일보(각오) (民國日報·覺悟)	1920-1923	11	
	동방잡지 (東方雜誌)	1920-1924	9	
	조간부간(문학순간)(晨報副刊·文學旬刊)	1923-1924	7	
	경보부간 (京報副刊)	1925-1926	7	1
	여성잡지 (婦女雜誌)	1921-1923	7	
	삭풍 (朔風)	1939	5	
	국민잡지 (國民雜誌)	1941-1942	5	2
	신조 (新潮)	1919-1921	4	
	풍우담 (風雨談)	1943-1944	3	1
	18		977	11

1915년부터 1944년까지 18개 신문에 총 977편의 글이 발표되었는데, 이 중 일본 관련 글이 총 11편으로 『신청년(新青年)』 18) 1편 『어사(語絲)』 1편 『청년계(青年界)』 19) 1편 『소설 월간(小說月刊)』 20) 1편 『조간부간(晨報副刊)』 21) 3편 『경보부간(京報副刊)』 1편 『국민잡지(國民雜誌)』 22) 2편이었다.

-
- 18) 『신청년(新青年)』 1920년대 중국의 영향력 있는 혁명 잡지로, “5·4운동” 기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다. 1915년 9월 15일 창간호부터 1926년 7월 중간까지 9권 54호가 나왔다.
- 19) 『청년계(青年界)』 1931년 3월 10일 상하이에서 창간되었다. 1937년 6월 제12권 제1호까지 출간되어 폐간되었고 1946년 1월 복간되었으며, 1949년 1월 6권 5기로 중간되었다.
- 20) 『소설 월간(小說月刊)』 1910년 7월 상하이에서 창간되었으며, 1932년 쑹후전쟁“淞滬戰爭” 때 폐간되었다. 총 22권, 262호가 나왔고 최초의 대형 신 문학 간행물이다.
- 21) 『조간부간(晨報副刊)』 1921년 10월 12일 개정판으로 독립 발행되었고, 1925년 4월 1일부터 “조간부간”으로 개간되어 1928년 6월 5일에 중간되었다. “5·4 신문화 운동” 시기에 사회주의·마르크시즘을 선전하고 신문학을 제창하다.

<표 4> 지당 (知堂) 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글

투고 사용명	투고신문	연도	편수	대일 관련 기사
知堂(지당)	우주풍 (宇宙風)	1935-1939	48	4
	문예잡지 (文藝雜誌)	1943-1944	14	
	고금 (古今)	1943-1944	13	
	중화월간 (中華月刊)	1940-1944	10	1
	중국문예(베이징) 中國文藝 (北京)	1939-1940	10	
	국문주보 (國聞周報)	1935-1937	8	4
	논어 (論語)	1936-1937	7	
	인세간(人世間)	1934-1935	6	
	담풍 (談風)	1936-1937	6	1
	일본문와 일본어 (日文与日語)	1935	5	3
	독립평론 (獨立評論)	1935-1937	5	
	잡지 (雜誌)	1944	5	
	풍우담 (風雨談)	1944-1945	4	
	삭풍 (朔風)	1938-1939	3	
	구시 (求是)	1944	3	
	문학잡지 (文學雜誌)	1937	3	
	유일 동창회 일간지(留日同學會日刊)	1943	2	
	자유평론 (自由評論)	1936	2	
	신학생 (新學生)	1943-1944	2	
	동방문화(東方文化)	1942	2	
	20		158	13

1934년부터 1944년까지 20개 신문에 158편의 글이 실렸는데, 이 중 일본 관련 글이 13편으로 『우주풍(宇宙風)』²³⁾ 4편, 『중화월간(中華月刊)』²⁴⁾ 1편, 『국문주보(國聞周報)』²⁵⁾ 4편, 『담풍(談風)』²⁶⁾ 1편, 『일본문와 일본어(日文与日語)』²⁷⁾

22) 『국민잡지(國民雜誌)』 1941년 1월 베이징에서 창간되어 1944년 12월 4권 12호로 출판되었고 국민잡지사에서 편집하여 발행하는 월간지로서 종합간행물에 속한다.
 23) 『우주풍(宇宙風)』 1935년 9월 상하이에서 반월간으로 창간되었다가 순간으로 바뀌었다. 항일전쟁 때 광저우(廣州)·중칭(重慶) 등지에서 출간돼 『논어(論語)』·『인간세(人間世)』에 이어 부르주아 문예지로 등장했고, 1947년 폐간됐다.
 24) 『중화월간(中華月刊)』 1940년 1월 베이징에서 창간되었으며 종합 간행물 및 월간지에 속하고 이 신문에 실린 역사 논문은 질이 높고 일부 기사는 여러 번 연재되어 민족역사 연구에 어느 정도 사료적 참고가치가 있다.
 25) 『국문주보(國聞周報)』 1924년 8월 상하이에서 창간되어 1927년 4권부터 텐진(天津)으로 옮

3편이었다. 위의 수집 상황을 바탕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일본 관련 글 31편을 얻었다.

<표5> 주작인이 발표한 대일 관련 글

년도	편수	발표한 글	발표신문	발표시간
1919	1	<일본여행의 잡다한 감상>	신청년 (新靑年)	1919년 제6권 제6호
1921	1	<일본의 시>	소설월간(小説月刊)	1921년 12권 5호
1923	3	<일본의 소시 1>	조간부간(晨報副刊)	1923년 4월 3일
		<일본의 소시 2>		1923년 4월 4일
		<일본의 소시 3>		1923년 4월 5일
1925	2	<일본 낭인과 순천시보>	어사 (語絲)	1925년 51호
		<일본과 중국>	경보부간(京報副刊)	1925년 294호
1926	5	<지나와 왜구>	어사 (語絲)	1926년 111호
		<일본인의 은혜>	국민신보 부간 (國民新報副刊)	1926년 51호
		<왜 중일문화사업위원회 아직 해체 되지 않았다>	경보부간(京報副刊)	1926년 384호
		<정말 명하니 있는 건지 아니면 가짜 바보인 건지>		1926년 427호
		<일본은 중국의 적이다>		1926년 440호
1927	2	<일본인의 호의>	어사 (語絲)	1927년 131호
		<배일평의>		1927년 139호
1934	1	<일본의 문학을 이야기하다>	청년계 (靑年界)	1934년 제6권 제3호
1935	5	<일본어에 대해>	일본문와 일본어 (日語與日語)	1935년 제2권 제1호
		<일문총담 3>		1935년 제3권

- 졌고, 1936년 13권부터는 다시 상하이로 옮겨 1937년 12월 27일 폐간되었다.
- 26) 『담풍 (談風)』 1936년 10월 25일 상하이에서 창간되었는데, 그 안의 칼럼인 “담풍(談風)”, “유머 문수”, “어림(語林)”, “서평”, “해외헌거록”은 모두 주작인의 투고였다.
- 27) 『일본문와 일본어(日語與日語)』 1934년 1월 북평에서 창간되었으며, 교육 간행물, 월간지에 속하고 장아찌(張我軍)가 편집장을 맡고 편집 고문으로는 주작인(周作人), 첸다순(錢稻孫) 등이 있다. 이 잡지는 1935년 12월에 제3권 제6호를 출판한 후 경제적 부족으로 폐간되었다.

		일문한독법>	국문주보(國聞周報)	제 1 호
		<일문총담 4: 화본>		1935 년 제 3 권
		<일본의 관규지견 1>		제 2 호
		<일본의 관규지견 2>		1935 년 12 권 18 호
1936	5	<일본의 관규지견 3>	우주풍(宇宙風)	1935 년 12 권 25 호
		<도쿄를 그리워하다>		1936 년 제 13 권 1 호
		<도쿄를 그리워하다 2>		1936 년 25 호
		<일본 문화 책에 대해 이야기하다 1>		1936 년 26 호
		<일본 문화 책에 대해 이야기하다 2>		1936 년 26 호
1937	2	<중일의 익살스러운 문장을 이야기하다>	담풍 (談風)	1937 년 12 호
		<일본의 관규지견 4>	국문주보(國聞周報)	1937 년 제 14 권 25 호
1942	3	<일본의 재인식>	중화월간(中華月刊)	1942 년 제 3 권 제 1 호
		<화베이 교육자 간담회: 필리핀 미얀마 탐사후 대동아전쟁 동향은 어떤가> <대동아전쟁 이후 화북 지식인의 사명은 어떠한가>	국민잡지(國民雜誌)	1942 년 제 9 권 제 7 호
1943	1	<시마자키 후지무라 씨>	풍우담(風雨談)	1943 년 제 7 호

2) 연구 방법

이 글은 주작인이 발표한 31편의 글을 분석한 결과 주작인의 일본 고찰은 모

두 문화에 기초하고 있으며, 문화의 관점에서 일본의 민족적 성격, 일본의 의식주를 고찰하고 사회정치적 측면에서도 자신의 문화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작인은 문화의 관점에서 일본의 여러 측면을 고찰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생겨난 여러 가지 인식도 문화를 고찰한 후에 파생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러한 인식과 문화는 서로 교차하여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문화·사회생활과 일본어의 교육, 그리고 정치적 입장과 문화적 입장을 분류하고 분석한다. 문화 부문에서는 일본의 소시 하이쿠와 익살스러운 글들이 주로 소개됐다. 일본 문화의 입장에 대한 주작인의 인식과 주장도 담겨 있다. 정치적 입장 부분은 초기 일본의 침략에 대한 비판과 일본의 낭인과 일본 정부의 기관지들에 대한 비판적 발언이 주를 이룬다. 생활 부문에서는 일본 유학 생활의 소감과 일본의 의식주 문화에 대한 고찰이 주를 이뤘다. 일본어 교육 부분의 내용은 중국인이 일본어를 배우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이다.

본 연구에서는 31편의 글을 문화, 정치, 생활과 일본어 교육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문화 예술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입장에 대한 글을 표 6과 같이 13편 정리하였다. 일본의 시(하이쿠와 소시 등) 일본의 익살스러운 문장 우키요에에 대한 인식, 일본 문학의 번역 상황에 대한 설명, 일본 문화의 입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주장들, 본 연구는 주작인의 글에서 원문의 다양한 관점을 인용하여 분석하고 설명할 것이다. 둘째, 일본의 생활과 일본어 교육에 대한 인식의 글을 표 7과 같이 6편 정리하였다. 생활 방면에 대한 인식은 주로 주작인의 도쿄 생활에 대한 추억과 일본의 의식주 문화에 대한 고찰에서 나타나며, 주로 그의 <도쿄를 그리워하다(懷東京)> 두 편과 <일본의 관규지견 2(日本管窺)>에서 일본의 의식주에 대한 고찰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정치적 인식의 글은 표 8과 같이 12편을 정리하였다. 당시 일본의 정치적 태도에 대한 주작인의 인식과 시기별 일본에 대한 정치적 입장 변화를 원문을 인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표6> 일본문화와 문화적 입장에 대한 인식의 글

영역	발표 문장
문화	<일본여행의 잡다한 감상> <일본의 재인식> <중일의 익살스러운 문장을 이야기하다> <일본 문화 책에 대해 이야기하다 1> < 일본의 관규지견 1> < 일본의 관규지견 3> <일본과 중국> <일본의 소시 1> <일본의 소시 2> <일본의 소시 3> <일본의 시> <일본의 문학을 이야기하다> <시마자키 후지무라 씨>

<표7> 일본 사회생활과 일본어 교육에 대한 인식의 글

영역	발표 문장
생활	<도쿄을 그리워하다> <도쿄을 그리워하다 2> < 일본의 관규지견 2>
교육	<일본어에 대해> <일문총담 3: 일문한독법> <일문총담 4: 일본 화본>

<표8> 일본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인식의 글

영역	발표 문장
정치	<p style="text-align: center;"> <일본 낭인과 순천시보> <지나와 왜구> <일본인의 은혜> <왜 중일문화사업위원회 아직 해체되지 않았다> <정말 명하니 있는 건지 아니면 가짜 바보인 건지> <일본은 중국의 적이다> <일본인의 호의> <배일평의> <화베이 교육자 간담회: 필리핀 버마 탐사후 대동아전쟁 동향은 어떤가.> <대동아전쟁 이후 화북 지식인의 사명은 어떠한가 > <일본 문화 책에 대해 이야기하다 2> < 일본의 관규지전 4> </p>

IV. 연구 결과

1. 주작인의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입장에 대한 인식

1) 일본 문화 이해에 대한 인식

일본문화에 관한 연구와 설명으로는 우선 시적인 면에서 1921년에 발표된 <일본의 시(日本的詩)>에서 일본시의 분위기는 보편적으로 일본의 특색이라고 하였다. 그 중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풍속과 감정의 관계다. 일본 국민은 미술적 감수성을 타고났다. 천물(天物)의 아름다움에 대해 특히 잘 터득하여 아름다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형형색색으로 표현하면 각종 미술 및 공업 작품이 된다. 말로 표현하면 매우 우아하고 섬세하다. 곧 여러 가지 시가 된다. 이것은 극히 흔하고 보기 쉬운 일이다. 둘째는 말의 관계다. 일본어는 원래 복음(復音)의 언어이다. 그러나 '가명'으로

졌는데, 한자 1음을 규정하고 자음 모음을 각각 합쳐서 만들었다. 같이 읽으면 소박하면서도 조화롭다. 두 번째는 시 장르의 단순함으로 위에서 말한 시가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만들어냈다. 일본 문학에서 단시형(短詩形)의 발전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고 일본어는 소박하고 조화롭다. 그래서 자연히 짧은 것이 귀중하다. <소설 월간 (小説月刊) 1921년 12권 5호>

우선 시는 일본에서 매우 보편적이다. 짧은 것도 일본시의 특색 중 하나인데, 일본어의 조화가 소박하기 때문에 일본시도 아름답다. 시는 언어를 나타내는 예술적 표현으로, 일본어의 특색은 독특한 단시 형식을 발전시켰다.

중국과 사뭇 다른 점이다. 시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특히 그를 두 구 다섯 구, 일곱 구로 번역하는 것과 같다. 물론 밥을 씹어 먹이는 것과 같다. 산문으로만 대의를 설명하는 것이다. 리치를 즙을 내어 먹는 것과 같다. 향은 변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인용한 노래는 일단 이 방법으로만 해석을 할 수 있다. <소설 월간 (小説月刊) 1921년 12권 5호>

일본의 짧은 시는 매우 짧은 까닭에 완전한 문법의 문장을 구성할 수 없으며, 심경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의 표현은 함축적으로 언어를 다 말하는 것을 꺼린다. 그런 시는 오직 일본어만의 독특한 성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번역하면 시의 정취가 없어진다. 하지만 함축적인 표현도 중국 시의 특색이어서 중국시에서 나왔다는 견해가 있다. 주작인은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사람은 이 함축이 한자의 영향이라고 하는데 사실 아니다. 일본도 한자로 훈독(訓讀)이 많지만, 시에서 음독(音讀)하는 한자는 거의 없다. 그리고 한자와 일본어는 음이 다를 뿐 다른 의미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일본 시는 사상적으로 혹은 여러 외래에 의해 영향을 받아 그 짧은 시형(詩形)과 내포된 표현법은 모두 언어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문화이다. 한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소설 월간 (小説月刊) 1921년 12권 5호>

일본어의 발음과 언어적 특성으로부터 일본의 시 문화를 중국 문화로부터 독립시켰다. 주작인은 <일본의 소시(日本的小詩)> 세 편에서 일본의 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시(小詩)라 할 수 있으며 하이쿠는 일본 소시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하이쿠의 형식적 성격과 내용의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 하이쿠를 고대 그리스와 중국의 고대 절구(絶句)와 비교해 하이쿠의 특색을 정리했다.

첫 번째는 하이쿠의 발전 역사로 네 시기로 나뉜다.

일본의 하이쿠는 16세기부터 지금까지 400년 동안 크게 네 가지 변화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제1기는 16세기, 조사(祖師)인 야마자키 소칸(山崎宗間), 마쓰나가 데이토쿠(松水貞徳), 담린(淡林)과의 니시야야 소인(西山宗因) (비록 시대는 비교적 늦었지만)는 각각 자신의 과별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보기에 대동소이하고, 화해의 재미와 쌍관어구(雙關語)는 매우 같은 경향이 있었다. 제2기의 변화는 17세기 말, 마쓰오 바쇼(檜尾芭蕉)가 나와 교묘하고 익살스러운 하이쿠 문학(17자를 1수(首)로 하는 일본의 단시(短詩))의 구법(내용이 익살스러워서 비유하고 희롱하는 글자를 말한다)을 내놓으면서 하이쿠 문학의 가치를 높였다. 파초 이후 하이쿠를 진흥시킨 사람은 덴메이(天明,1781~89)의 요사 부손(與謝芜村)으로, 18세기 후반은 제3기의 변화를 위한 것이었다. 하이쿠 제4기의 변화는 메이지 연간, 즉 19세기 후반, 하이쿠인은 대개 주관적인 구류에도 계속 교묘하게 창작하여 소일거리로 삼았고, 마사오카 코규(正岡子規)는 이러한 풍조를 배척하고 객관적인 묘사를 제창하였으며, 마침 자연주의 문학이 일본에 유입되어 많은 자료가 공급되어 그의 사생적 주장을 촉진시켰다. 제4기에 이르러 자연주의가 유입되면서 현실주의로 바뀌었다. <조간부간(晨報副刊) 1923년 4월3일>

첫째, 시형식의 문제다. 고대 그리스시(Epigrammata)는 두 줄의 시, 중국의 절구(絶句) 28)도 스무 자밖에 되지 않았지만 하이쿠처럼 짧은 시는 없고, 다른 짧은 시는 절약하기보다는 짧다. 하이쿠는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지 못하면서도 언외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특색이다. 둘째, 시의 성격이 간단명료하다. 책에서 가장 꺼리는 것은 시속의 기질이다. 하이쿠는 속어를 많이 쓰지만 좋은 시가 될 수 있다. 셋째, 시의 형과 내용의 문제다. 우리가 문장의 형식과 내용에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짧은 하이쿠에 그의 독자적인 역할과 범원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서투른 문장은 정물의 책으로, 원래부터 경치만 썼을 뿐, 순수하게 서정적인 것은 거의 없고, 서사적인 것은 더더욱 없다. <조간부간(晨報副刊) 1923년 4월4일>

일본의 하이쿠는 고대 그리스 시와 중국의 절구에 비해 훨씬 짧다. 하이쿠는 짧고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을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시의 언외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 특색이 있다. 속어를 쓰지만 재미와 정서가 넘치는 작은 시가 된다. 대부분 경치만 묘사할 뿐 순수한 서정이나 서사가 없어 독특한 역사를 만들었다. 하이쿠의 유래에 대해 주작인은 이렇게 말한다.

혹은 중국의 소시가 원래 절구(絶句)에 불과하다고 말하거나, 와카타구(和歌)는 모두 중국 절구의 변화체라고 말한다. 그의 영향을 받은 시는 절구의 역문화 전파일 뿐이다. 말이 다 맞아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조간부간(晨報副刊) 1923년 4월5일>

28) 絶句 근체시(近体詩)의 한 형식에 속한다. 한나라, 위진남북조의 가요에서 유래했다.

일본의 문화가 중국의 당나라와 수나라에서 발원하여 주작인은 하이쿠도 중국 절구(絶句)의 변화체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앞에서 말한 하이쿠의 특성은 완성되지 않은 문법을 구성하는 문장이 시의 언외(言外)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특색이 유일무이한 점은 일본 하이쿠 문화의 독립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작가들은 저마다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번역하는 일은 실제로 어렵다. 무사노코지 사네아쓰(武者小路實篤)의 문장 등등, 보기만 해도 간단한 문장인데 번역이 어렵다. 그의 그런 힘찬 짧은 문장은 한문이 되었을 때, 형편없는 문장으로 변하였다. <청년계(青年界)1934년 제6권 제3호>

일본 문학작품은 원문을 감상할 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일단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그 본래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깨뜨린다. 주작인의 눈에 비친 일본의 문학작품은 예술적 가치와 문학적 성취가 높아 번역할 때 그 아름다움을 깨뜨렸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일종의 높은 긍정이다.

내가 가르치는 북경대학은 일본어를 가르치는 관계로 『형』, 『우리는 고양이』, 『풀베개』 등도 읽는다. 학생들은 모두 매우 흥미를 느낀다. 대체 소설의 작품은 번역에서 받은 감명 내지 영향이 적고, 일본어를 읽는 데 영향을 받은 사람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노신의 『아Q정전』은 아마도 『우리가 고양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 많을 것이다. <청년계(青年界)1934년 제6권 제3호>

여기서 노신의 작품을 언급한 것도 일본 문학 작품의 영향인데, 중국의 신문학이 발전하는 길은 일본과 같고, 일본 문학은 중국 근대 문학의 원류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중국 근대의 많은 저명한 지식인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노신의 문학작품은 중국 근대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은 일본 문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다른 문학작품들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주작인을 포함한다. 곽말약(郭沫若)은 중일 문학 관계에 대해 "중국 문단의 대부분은 일본인 유학생들이 건축했다. 비록 중국 신문학 운동은 미국 유학생인 후스(胡适)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그것의 기본적인 근간 역량은 유일 학생이다. 신문학의 주요 진지인 『신청년(新青年)』의 주필 진독수를 비롯하여 이대조(李大釗), 전현동(錢玄同), 고일한(高一涵), 오우(吳虞) 등이 모두 일본 유학 생활을 하

였다(孔凡嶺, 1987). 주작인이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일본의 문화적 진원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동아시아인들이 서로 문화적으로 더 공감하고 유럽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주작인은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 서양 문화를 많이 연구하여 읽었으며, 일본 문화에 대해 알고 일본 문화의 연구 가치를 발견한 후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였다. 일본 문화는 유럽 문화에 비해 중국인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이를 동양문화라고 불렀고, 일본이 발전시킨 동서양의 문화가 결합된 문화는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문명에 속한다. 주작인은 릿쿄대에서 그리스 문화를 전공하고 산스크리트어를 독학했다. 언어에 대한 개인적인 취미 외에도 주로 그 학문적 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胡令遠, 1994) 서양문화와 동양문화를 비교한 주작인은 로마문화가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한 것처럼 일본문화가 중국에서 기원한 것을 서양문화에 이어 일본문화까지 이해하면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문화책을 말하다 (談日本文化書) > 1편에서는 일본 익살스러운 문장에 대해 설명했다. 익살스러운문장은 일본의 독자적인 문장 형식에 속한다.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중국에도 그런 문장이 없었다. 주작인은 일본 문화를 연구하면서 일본 문화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회극본”(談諧本)은 문화문정(1804~29) 년도에 시작되어 서양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고, 중국에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일본인이 스스로 창작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우리는 영국 소설가보다 유머가 어떻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은 명백히 일본인은 유머의 재미가 중국인보다 훨씬 많다. 근대의 좋은 소설이 될 수 없다지만 평범한 서술은 회심의 미소를 머금고 있고, 특히 삼마(三馬)의 책은 거의 대화로 가득 차 있어 더욱 흥미롭다. 요컨대 익살스러운 점에서 일본소설은 자연히 조화와 성취가 있다. 일본의 익살스러운 문장은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중국에도 이런 스타일의 소설이 없었기 때문에 익살스러운 문장은 일본 문화에서 자작한 것이다. 이어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했다. <우주풍 (宇宙風) 1936년 26호>

중국은 그의 독특한 지위에서 특히 일본을 이해할 필요와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모두가 일본 문화를 경멸하고, 고대에는 중국을 모방한 것이고, 현대에는 서양 것을 모방한 것이며,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본 고금의 문화는 확실히 중국과 서양에서 재료를 얻었지만, 조제를 거쳐 그 자신의 것이 되었다. 로마 문명이 그리스에서 유래한 것처럼, 우리는 일본 고유의 문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철학 사상은 없지만, 예술과 생활 방면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우주풍 (宇宙風) 1936년 26호>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은 서양문화의 영향을 받아 당시 중국과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지식인들의 유학 붐을 일으켰고, 그들은 일본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보존한 나라이면서도 서양의 선진문명을 흡수했다고 생각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을 통해 서양의 문화를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화관은 일본 문화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문화를 중국이나 서양 문화의 종속으로 보는 단점이 있다. 주작인은 이 점에서 시종일관 명석한 두뇌를 유지하고 있다(于小植, 2009). 주작인은 일본의 문화를 깊이 이해한 후, 일본 문화를 중국과 서양 문화의 부속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며, 그것을 독립적인 문화로 보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예술 방면에서도 우키요에 작품에 대해 그 나름의 견해가 있다.

그런데 우키요에(Ukiyo-d)를 서양에서는 일본 컬러 목판화라고 하는데 공적인 진열장에서만 몇 장 본 적이 있을 뿐 자기 소유는 모두 복사본만 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민중화라고 생각한다. 요즘의 "요리사 미녀(大廚美女)"뿐만 아니라 건륭황제 때의 소위 "고소판화" (姑蘇板) 과도 비교하기 어렵다. 그는 항상 그렇게 현실적이어서 서민풍을 전문적으로 쓰고 좋은 의미를 취하지 않는다. 중국은 나중에 문인 화가들이 세력을 차지했는데, 실로 머리크고 몸이 짧은 괴상한 모습을 계승하기도 했다. 초상은 모두 딱딱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기운도 없기 때문이다. 일본 우키요에는 원래 화공이었지만, 적어도 염미(艷美)는 잡을 수 있었다. <우주풍 (宇宙風) 1936년 26호>

목판화는 원래 중국의 문화였는데 우키요에(浮世繪)는 중국에서 기원했지만 자신만의 특색이 있다. 일본은 중국에서 들여온 이런 회화 예술을 고유의 민족적 문화 형식을 거쳐 원래의 회화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문화로 발전시켰다. 예술의 특징, 아이디어, 내용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사회가 내포하는 인식의 의미와 예술의 감화력은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다. 주작인은 세상을 떠도는 아름다운 색채 속에 숨겨진 한 줄기 어두운 그림자가 사실 시대의 인식과 제작자 정신의 표현이라고 느꼈다 (胡令遠, 1994) .

시는 일본에서 매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짧은 것도 일본시의 특색 중 하나인데, 일본어의 조화가 소박하기 때문에 일본시도 아름답다. 시는 언어를 나타내는 예술적 표현으로, 일본어의 특색은 독특한 단시 (短詩) 형식을 발전시켰다.

일본의 시가 갖는 두 번째 특색은 함축이다. 그러나 이런 예술적 스타일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본 자체 문화 발전의 한 특색이다. 하이쿠의 특징도 짧고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을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시의 언외적 의미를 표현하는 데 있다. 속어를 쓰지만 재미와 정서가 넘치는 작은 시가 된다. 대부분 경치만 묘사할 뿐 순수한 서정이나 서사가 없어 독특한 역사를 만들었다. 익살스러운 문체는 일본만의 독특한 소설 문체로, 중국에는 이런 문학 스타일이 없고, 일본 스스로 이런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문체를 만들어냈다. 익살스럽다는 점에서 일본 소설은 저절로 조화와 성취가 있다. 일본 문학작품은 원문을 감상할 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일단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그 본래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깨뜨린다. 일본 문학 번역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중국은 당시 일본 문학작품을 읽기 시작했지만 번역된 작품은 많지 않았다. 예술은 중국의 목판화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 발원해 일본만의 회화 예술로 발전한 일본의 우키요에를 언급한다. 우키요에의 특색은 화려함인데, 주로 서민의 문화를 표현한 것이다.

2) 일본 문화적 입장에 대한 인식

일본 유학생생활에서 일본 문학을 접한 주작인은 시와 하이쿠 일본 문학소설, 우키요에와 같은 문화와 예술적 측면을 두루 포함, 일본의 의식주 문화를 체험했다. 이러한 축적들은 모두 일본의 인식을 모호함에서 구체화시키고 있다. 주작인의 인식 속에 새로운 일본, 즉 유학 전의 일본과 유학 후의 일본을 구성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문화적인 측면의 이해, 이러한 문화 연구와 이해 과정에서 일본 문화 입장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생겨났으며, 그가 발표한 1919년 <일본여행의 잡다한 감상(遊日本雜感)>에서 자신이 1911년 초에 귀국하여 9년 만에 도쿄에 간 느낌을 표현하였다.

내가 도쿄에 간 것은 바로 중국의 “배일”이 한창일 때였다. 그러나 내가 만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 “배일” 운동의 본질은 원래 학생연합회가 말한 바와 같다. 침략을 배척할 뿐, 논리를 펴는 일본의 침략가, 신문기자, 관료, 학자, 정치인, 군벌 등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은 서민뿐이었다. 서민도 일종의 피침략자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따돌림을 두

려워하거나 주의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모두 소상공인의 노동자들이다. 대부분 본분을 지키는 사람들로 농부는 특히 평화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중에는 사무라이 숭배자란 가증스러운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결코 어떤 직업인지 한정하지 않고 그들의 사상은 통속적인 침략주의이다. 『요일평론(星期評論)』 8호 대계도(戴季陶)씨는 일본 낭인의 흉악한 자세가 있고 그들의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작은 군벌”은 시대에 도태 무사 출신이 아닌데도 사회에서 무력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영향력이 크면서도 건방진 사내를 자처하는 것은 자국민에게도 무례하다. 그래서 나는 일본에서는 침략가 외에 이런 사람들도 가장 혐오스럽다고 생각했고 배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청년(新青年)1919년 제6권 제6호>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일본의 평민과 군벌 침략자에 대한 주작인의 태도가 정반대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반인도 일종의 피침략자이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계급갈등이 격화되고 빈부격차가 커짐에 따라 일반인도 어느 정도 피해자다. 반면 일본 사무라이 정신을 숭배하는 일본 낭인은 거칠고 무례했다. 사무라이의 정신적인 편집증에 대한 숭배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을 여행하는 외국인과 내국인들도 모두 소중히 여기며 사무라이(Samurai)와 게이샤(Geisha) 마찬가지다. 국가의 정수(國粹)라는 자부심은 본래 자국민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제도에 익숙해져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감정적이다. 또 이런 기사의 다수가 자국의 영예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열렬히 옹호한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신기한 것을 보면 익숙하지 않다. 재미도 있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감탄하다. 사실 둘 다 태도가 정확하지 않고 이성적 파괴술의 아름다움으로는 어울리지 않지만, 그렇다고 감정에 치우쳐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신청년(新青年)1919년 제6권 제6호>

정치인이나 낭인 같은 일본 국민은 무사도 정신과 일본 게이샤 문화를 중시하고 자랑한다. 서양인들은 이를 신비로운 낭만이라고 생각한다. 두 태도 모두 문화와 예술을 이성적으로 바라보면 아름다움이 훼손되지만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시대적 발언을 한다. 1919년 “5·4시기”를 시작한 지식인들은 청나라 말기 시대의 일련의 개혁과 구국운동의 실패를 목도하고, 문학을 국민사상을 계몽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여 사상혁명의 관점에서 문학혁명을 제시함으로써 문학 자체의 독립성과 특성을 무시하는 “공리주의”적 경향을 갖게 되었다. 이때의 주작인은 공리주의 성향과 급진적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학 자체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주의를 기울였던 비평가(黃開發, 2004)는 “5·4 운동” 초기부

터 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한 “5·4문화시기” 주작인의 문화관을 연구한 것이다. 글의 마지막 단락에는 일본의 문화적 입장에 대한 주작인의 개인적 견해가 담겨 있다.

우리는 일본의 단점을 지적하지만 그의 장점과 특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해 큰 희망이 있다. 일본 유신 이전에 일본의 많은 일에서 선생님을 배웠는데, 중국 선생님은 그들에게 일종의 “예교(禮敎)”를 길러서 가정 사회에 여러 가지 해악을 남겼다. 독일 선생님은 일본을 또 군국주의 국가로 키웠고, 국내외에 많은 다른 재앙을 심었다. 이제 두 스승-중국과 독일-자체 모두 쓰러졌다.

“문치파 (文治派)”와 “무력과 (武力派)”는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일본은 이 시기에 어떻게 할까? 여전히 중국과 독일 두 곳의 폐허의 잔해를 들고 낡은 집을 떠받치고 있을까? 아니면 제3의 선생님을 찾고 집 리모델링 배우러 가고 있을까? 이웃 나라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을 위해 배려하는 것,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사람들이 평화롭고 정당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세 번째 스승은 인류가 제3국-지상의 천국-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은 이 행복을 나눌 자격과 기회가 있다. 이 희망이 결국 허황된 “이상”일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매우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신청년 (新靑年) 1919년 제6권 제6호>

주작인은 사실 일본의 문화 입장에서 중·일 문화 관계에 대해 독립적인 태도이며, 또한 평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5년 <일본과 중국 (日本和中國)>을 발표했는데, 이 글에서 주작인은 일본 문화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는 일본이 중국 고대와 오늘날의 문화에 대해 모두 참고적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그의 독특한 지위에서 특히 일본을 이해할 필요와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모두가 일본 문화를 경멸하고 고대에는 중국을 모방했고 현대에는 서양 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볼 가치가 없다.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일본의 문화는 확실히 중국과 서양에서 지식을 얻었지만, 조정을 거쳐 그 자신의 문화가 되었다, 로마 문명이 그리스에서 유래한 것처럼, (혹은 일본의 성공이 로마를 능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철학적 사상은 없지만 우리는 예술과 생활의 방면에서 일본 자신의 문명을 최대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준다. 우리 중국은 그것을 일종의 민족 문명으로 간주하여 공평하게 연구하는 것 외에도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대부터 현재까지 자국의 문화를 연구하기에 충분한 참고 자료가 많기 때문이다. 실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일본 문화도 오늘날 중국인들이 무시할 수 없는 연구이다. <경보부간 (京報副刊) 1925년 294호>

주작인은 일본 유학 중 그리스어를 배우고 그리스 문화를 연구했다. 그는 일본 문화를 이해한 뒤 일본과 중국의 관계를 로마와 그리스처럼 생각했고, 일본 문화는 중국에서 기원했지만 자신만의 민족문화를 발전시켰다. 일본 문화를 연구한다면 중국 고대와 오늘날의 문화에 대한 연구에 참고할 수 있다. 주작인은 평생 “국학 (國學)”을 기본으로 하고 동·서양 문화의 정수를 겸비하여 학식이 깊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말대로 서양문화에서 주작인의 초점은 서양문명의 근원지인 고대 그리스에 있다(蔣保, 2005). 주작인의 고대 그리스 문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 전통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과 비판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민 문화와 자질의 개조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희망했다(蔣保, 2005). 주작인의 일본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비교한 것은 그가 중국 문화의 발전을 연구하는 길에 일본을 문화 연구 진영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 문화에 대한 독립성 인정뿐만 아니라 연구 목적도 갖고 있다.

일본 구(舊)문화의 배경은 전반부는 당나라식, 후반부는 송나라식, 현대에 이르러서는 유럽문화의 영향을 받는 상황이 현대중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의 신문화 발전의 역사도 중국과 매우 비슷하다. 다른 점은 단지 일본이 더 일찍 시작되어 빠르게 진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문단의 30년 운세를 예고하고 있다.....나는 우리가 지난 40년간의 문학 변화의 역사를 대충 한번 읽듯이, 우리가 많은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중국 신 문화의 발전을 일본을 봐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실대로 설명하면 근 15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은 거의 일본과 같다. <경보부간 (京報副刊) 1925년 294호>

주작인은 중국 고금의 문화 서적을 통독하면서 문학 방면의 연구에 대해 더욱 깊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일본 문학 발전의 역사를 접하면서 일본 문학 발전의 역사도 중국의 미래 문학 발전의 길임을 충분히 깨달았다. 일본 문화는 고대에 중국에서 발원하여 근대에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아 두 문화의 충돌로 새로운 문화가 파생되었다. 이는 중국에 큰 참고가 된다. 글의 마지막 주작인은 이러한 관점을 표현하였다.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에게 불리하게 중국 각지에서 참언을 퍼부으며 대중을 현혹하는 신문, 예를 들면 『순천시보(順天時報)』가 일본의 사건에 대해 선전변명을 하거나, 일본을 위해 변명하는 것은 그럴 만도 하겠지만, 중국의 흑색선전 바꾸어야 한다…… 일본이 중국에 대해 만분의 일의 호의가 있다면, 나는 『순천시보(順天時報)』 같은 신문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중일 인민의 친절과 같은 듣기 좋은 말을 주창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조금씩 이해하기를 바란다. 특히 중국이 일본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까닭에, 나는 중일 쌍방이 반성과 개선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를 떠돌고 있는 “지나통”(支那通)²⁹⁾과 낭인, 『순천시보(順天時報)』는 동양학술에 대한 연구와 발전이 매우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 때에 와서 여러분이 본 것은 일본에 대한 두 가지 태도, 하나는 친일의 노예, 하나는 일본의 모든 것을 배척하는 심부름꾼, 일본을 배척하는 사람은 일본에 대한 연구 태도만 가지고 독립적으로 독립과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용납할 수 없다. <경보부간(京報副刊) 1925년 294호>

글의 마지막 주작인은 일본에 대한 자신의 문화적 입장이 일종의 독립파라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 낭인들이 중국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순천시보(順天時報)』가 한자로 사실을 왜곡한 글을 게재해 중국 사회의 반감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 항일과 친일이라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순수 문화연구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1920년대 중반은 일본의 정치적 입장을 비판하는 글을 쏟아내는 시기였지만 일본의 문화적 입장에 대해서는 순수한 문화연구에 그친 제 3자적 입장을 표명했다. 자신이 앞으로 “친일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은 이미 나와 있다. 이 시기 주작인의 배일 발언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일본 문화를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했다. 문화적 입장에서 독립파임을 밝힌 것이다.

일부 선행 연구에서는 30년대 중·일 관계의 긴장은 바로 주작인 개인의 생존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며, 게다가 중국의 정치 시국에 대한 실망으로 그는 중국의 실패한 운명을 본 것 같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개인주의” 민족주의는 이 환경의 압력으로 서서히 해소되었다. 그래서 민족주의의 배일 주장을 급진적으로 펴지 않고 훨씬 평화로운 문화 비평으로 대체하였다(許憲國, 2006). 이러한 견해는 일본에 대한 그의 정치적 입

29) 지나통(支那通)은 중국 국정에 정통한 일본인을 가리킨다

장과 문화적 입장을 모호하게 하고, 그의 정치적 입장의 전환으로 문화적 입장도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1920년대 일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올렸지만 문화적 입장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일본 문화를 인정한다고 밝혔고, 중국이 일본 문화를 연구해야 한다고 극구 주장했다. 이러한 견해는 1925년에 발표된 <일본과 중국>에 게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작인은 일본 정부 측을 배척하는 글을 쏟아냈다. 심지어 자신이 앞으로 “친일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30년대 일본에 대한 정치적 입장은 여전히 배척이었다. 30년대 일본에 대한 순수한 문화 고찰만 있을 뿐이라는 시각은 포괄적이지 않은 평가였다. 일부 주작인의 일본 연구 문제에 대해 연구자들에게 “배일”이 아닌 “친일”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지만 “배일”과 “친일”도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애정은 문화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 주관적인 감정 때문이기도 하다. 1936년 <일본의 관규지견 (日本管窺)> 첫 편에서 주작인은 글 시작할 때 이렇게 썼다.

일본은 내가 그리워하는 곳이다. 나는 이전에 항저우 (杭州) 에서 2년, 남경 (南京) 도쿄에서 각각 6년, 소흥(紹興) 에서 약 20년, 민국 6년 이래 북경 (北京) 에서 살았었다, 이런 곳들은 모두 나의 일종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모두 일종의 정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나는 일본인의 고금불변 (古今不變) 의 특성은 역시 현재 세계 사상이고, 중국과 공통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둘째는 미의 취미인데, 이는 중국이 부족한 것이 마치 고대 그리스와 비슷하지만 힘이 약할 수밖에 없다.
<국문주보 (國聞周報) 1935년 12권 18호>

자신이 살던 곳을 모두 고향으로 삼은 주작인은 도쿄가 제2의 고향이라고 여러 차례 썼다. 일본이 “리틀 그리스”로 칭송받았을 때도 그는 공감을 표시했다. 주작인은 그리스 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바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그리스와 로마와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의 문화적 기원은 중국과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리스에 비유하면 주작인이 일본의 문화적 입장에 대해 고도로 공감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미를 사랑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이기 때문에 주작인은 고대 그리스 문화의 미를 극찬했다(蔣保, 2005). 이는 주작인의 눈에 비친 일본 문화의 특징과도 일치하며, 즉, 일본인은 모든 아름다운 것을 사랑한다. 문학작품에도 여러 가지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이 담겨 있다. 이 무렵인 1935년 주작인의 이런 글이 주류문화에 의해 비판 받고 “문화적 매국노”라는 별명이 붙는 데 대해 그는 1936년 <일본의 관규지견 3 (日本管窺)>에서 이를 설명했다. 그는 친일파 인식에 대해 이렇게 썼다.

친일이란 Nipponophilos의 번역일 것이다.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 일본의 친구라고 할 수 있다. 우정은 친족관계와 달리 서로 부화뇌동하지 않고, 서로 아는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이 들며, 개인과 민족은 비록 크기는 현격하지만 감정은 다르지 않다. 세계에서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은 줄곧 고이즈미 야우으로 대표된다. <국문주보 (國聞周報) 1935년 13권 1호>

중국의 친일파는 유교도(儒教徒)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지탄을 받지만 그 이름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중국이 미워하는, 일본이 환영하는 그런 친일파는 진정한 친일파가 아니라, 이익을 추구하며 영예를 추구하는 소인배일 뿐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일본 못지않게 해로운 것은 중국의 실리(實利)를 훼손하고 일본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국문주보 (國聞周報) 1935년 12권 18호>

주작인은 당시 세인들이 말하는 “친일파”를 국가의 이익을 팔아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소인배라고 생각했고, 그가 생각하는 친일파는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중국은 현재 어느 누구도 친일파로 불릴 자격이 없다. 우선 자신이 친일파라는 당시 인식,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실리를 팔아먹은 적이 없다는 점을 부인한 것이다. 이 글이 발표된 시점은 1936년으로, 주작인은 일본 정부가 부여한 어떤 괴뢰 직책도 얻지 못했다. 둘째, 주작인은 일본 문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 즉 일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때 친일파로 비난받았던 그는 일본에 대한 문화적 입장과 일본 정치를 배척하는 글을 올린 1920년대 중반의 입장은 같았고 글 마지막에 그는 또 이렇게 썼다.

그러나 한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외롭다. 평소에는 이전 문화에만 신경을 쓰지만 현실에서는 다를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 갈등과 실망을 안겨준다.....그래서 외로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연구에 착수할 수 없고, 너무 열심이라면 반드시 마음속 문화를 현재의 사실과 일치시키기를 원할 것이고, 결과는 분명 모순과 실망으로 인해 중단될 것이다. 학생들에게 일본 문학과 배경을 강의하기 위해 늘 고민하는 의문점들은 풀리지 않고, 결국 많은 고급 문화들이 과거의 소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현재의 다수에 대해 아무런 세력이 없다는 결론은 비록 암담하고 생기가 부족하지만,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거짓이 없다. <국문주보 (國聞周報) 1935년 12권 18호>

주작인의 문학관은 분명히 일본 유학 시기, “5·4문학혁명” 초기, 1930년대의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 몇 시기 동안, 그 문학관은 모두 ”공리주의“와 대립, 의존, 대화의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黃開發, 2004). 문화에 대한 연구와 인식이 정치 시국의 대립으로 인해 개인적 정서를 가진 주관적인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문화의 독립성을 견지해 왔다. 일본의 문화적 태도에 대해 정치적 시국에 잡혀서는 안 된다. 그러나 또 정치 시국을 놓고 갈등하는 심리상태는 일본 문화에 대한 입장에서조차 당시 사회 현실과 대립, 의존, 대화의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학생들에게 일본 문화를 강의하면서 자신의 곤혹스러운 질문에 고급 문화는 과거일 뿐 지금은 세력이 별로 없다고 답해 현재 일본이 우파 군국주의의 손아귀에 있고 그가 인정한 문화진영은 사회의 한구석으로 후퇴했음을 시사했다. 같은 해 <일본문화책을 이야기하다2 (談日本文化書)>를 발표해 같은 갈등 심리를 드러냈다.

중국이 일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20년 동안 중국 앞에 나타난 일본은 모두 두려운 모습이었다. 수나라 당나라 시대의 문화적인 교류는 완전히 소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오년의 갈과 충의 전투도 신속하고 대범해서, 이미 불가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이 비열한 방법이다. <우주풍 (宇宙風) 1936년 26호 >

일본은 1906년부터 중국에 대해 해온 모든 것을 불쾌하게 여겼고, 중국과는 수나라·당나라 때처럼 순수한 문화 교류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겸손했던 학생들은 가증스러운 “악당”으로 돌변했다. 당시 정치 시국이 이처럼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주작인은 문화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말은, 우리가 일본의 문화를 연구, 이해, 또는 이야기하려는 목적은 단지 일본 민족의 대표인 현자를 찾아내고, 같은 인류 중동의 동양인의 슬픔을 듣고 싶으면서도 그 영웅들을 제쳐두고, 그것이 어떤 원한이나 경멸이든 간에 말이다. 이게 할 수 있는 일인지 나는 대답할 수 없다. 못해도 타할 수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항덕(亢德) 씨의 계획은 크게 실패할 것이다.....내가 처음도 두 번째도 아닌 길을 걷거나, 세상에 세 번째의 길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실패해도 어쩔 수 없다. <우주풍 (宇宙風) 1936년 26호 >

당시의 중국인들은 일본을 보면 증오와 혐오만 눈에 띄어 모든 것을 타도하고

일본을 부정하며 일본 문화의 성취를 볼 수 없었다. 주작인은 또 일본 문화를 연구하려면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현명한 사람(문화파)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영웅들(무력파)이 하는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없어 첫 번째 “친일”의 길도, 두 번째 “배일”의 길도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는 제 3의 독립적인 입장과 1925년 발표된 문화적 입장과 일치한다.

일본의 고급의 문화는 확실히 중국과 서양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나, 외부의 영향이 이미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나름대로 전통이 있어, 독자적인 의의와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주작인은 일본 문화의 인간미가 풍부한 면과 세속적인 면을 감상했는데, 이른바 “국화”의 일면을 감상했다. 그러나 일본 문화에서 군국주의의 한 면, 이른바 “검”의 한 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비판의식도 부족했다(于小植, 2009).

이 글에서 주작인은 일본 영웅의 대표들이 하는 모든 일을 무시할 수 없다며 문화를 중시하고 군국주의를 경시한다는 앞의 연구소의 견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심리는 모순되지만 문화적 입장은 제3자의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침략과 군국주의는 여전히 배척이며 문화적 독립성과 정치적 배척성은 모순되지 않는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작인이 일본 문화를 두둔하는 또 다른 표현은 일본의 무력이 일본 문화를 빌려 침략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씻기 위해 그가 일본의 문화와 일본의 침략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긋고 있다는 것이다(汪注, 2010). 주작인은 1920년대에 일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대량으로 발표하면서 자신이 일본 문화에 대해 인정한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비록 일본 문화를 두둔한 혐의는 있지만, 일본의 침략을 씻어내는 것은 일방적, 주관적인 표현이라고 말했다. 문화적 입장을 정치적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문화 입장과 정치입장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표현이다.

1942년 <일본의 재인식 (日本之再認識)>을 발표해 일본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수정했고, 이때 주작인은 현실사회에서 객관적으로 “친일파”가 됐다.³⁰⁾

30) 1940년 12월 19일 왕징웨 (汪精衛) 이 괴뢰정권은 주작인을 “화베이 정부위원회” 위원, 상무위원 겸 교육부 감찰특과원으로 지정했다. 1941년 10월부터는 “동아시아문화협회”의원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1943년 6월부터 화북종합조사연구소 부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1944년 5월부터 『화북신보(華北新報)』의 지배인, 보도협회 이사, 중일문화협회 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이들 직

만약 다른 곳에서만 같은 것을 구하고, 같은 곳에서 다른 것을 찾지 않는다면. 주관적일 뿐 객관적인 고찰은 하지 않고 한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려 한다면 적어도 헛된 일일 것이다. 우리는 일본문화를 보면 정치상황, 가족제도, 사회습관, 문자기술의 전통, 유가사상의 교류 등 그 같은 부분을 동아시아문화로 받아들인다. 여기에 바로 큰 오류가 있는데, 우리 전자는 일본 문화를 고찰하고, 왕왕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취하여 감상을 하는데, 이것이 특별히 일본 문화와 동양에서 공유하는 성분인지 모른다, 본래 그 고유의 정신이 있는 곳이 아니다.....나는 위에서 일본에 대한 많은 관찰을 말했는데, 그 목적은 단지 지금에 와서 취소하는 것이다, 가는 길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단지 일본 문화중의 동아시아적인 일면일 뿐이다, 일본의 본모습이라면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의 문화를 알고 싶어 문학과 예술에만 매달리는 것도 잘못이고 적어도 항상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중화 월간 (中華月刊) 1942년 제3권 제1호>

차이에서만 같은 것을 구하고, 같은 것에서 차이를 구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고찰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간과하는 것은 일본의 민족문화를 이해할 수 없고, 일본문화에 대한 그의 인식은 이전에 자신이 알고 있는 문화 인식에서 고찰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중 비슷한 점을 찾아 자신의 인식에 국한되기 쉬우며, 일본의 양면성에 대한 근원, 즉, 일본은 스스로 감상하고 인정하는 고급 문화도 가지고 있다. 지금은 우파 군국주의에 점령당해 중국에 비열한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정신적 신앙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이 방면에 대한 탐구는 결핍되어 있다. 문화와 예술적으로만 일본을 고찰한다고 해서 일본의 본래 모습을 다 알 수는 없다. 앞서 자신이 한 일본에 대한 문화 고찰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글의 말미에 그는 또 이렇게 썼다.

내가 한 말이 부정적이어서 미안하지만, 내가 일본에 대해 느낀 점을 요약하면, 완전히 부정적이어서, 일본을 이해하려면 종교부터 시작하라는 긍정적인 말이 남는다. 짧은 말이지만 지극히 성실하고 중요하다. <중화 월간 (中華月刊) 1942년 제3권 제1호>

일본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종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은 솔직하고도 중요하다. 주작인이 괴뢰 정부 고문직을 담당하는 시절 이런 견해를 피력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의 문화 답사 때 느낀 점을 부정하고 신도교에 화살을 돌렸기

위는 모두 괴뢰정부가 부여한 직무에 해당한다.

때문이다. 신도교(神道教)는 일본의 국민신앙으로 자연숭배·조상숭배와 천황숭배 위주의 종교로 천황에 신성을 부여했으며, 일본 지배계급이 천황숭배에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일종의 통치도구다. 특히 주작인은 1937년 발표한 <일본의 관규지견 4(日本管窺)>에서 일본인의 민족성 갈등에 대해, 즉 청결하고 소박하며 고급스러운 미적을 지녔으면서도 중국에 대해 더럽고 잔인한 침략을 일삼았다고 언급하였다.

일본의 문화 미술은 중국 계통의 문화로 서양인에게 보여 지고 또 기계 병기는 서양 계통의 문화로 중국인에게 보여 주지만, 일본 특유의 신도교 정신은 내세우지 않아서 남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크게 칭찬할 만하다. 일본이 우경 운동을 위해 영혼을 찾는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 국수(國粹)라고 해도 무방하다. 우리가 평소에 일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소수의 현명한 철인의 정신이 보내는 것을 이해하지만, 전체 국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나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고급 문화가 나타내는 사람은 종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국문주보 (國聞周報) 1937년 제14권 25호>

그는 신도교를 일본 우익의 영혼으로 여기고, 일본 상류 문화와의 신앙은 단층으로 봤다. 주작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상류층 문화는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이 갖고 있을 뿐이며, 그들은 일본 상류층의 문화를 대표한다. 자기가 항상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신도교는 군국주의 신앙이자 자신이 그동안 증오해 온 대상이었다. 일본의 모순성을 이해하려면 신도교에서 이해해야 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신앙은 신도교이기 때문에 일본 문화를 대표하는 현자들 입장과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다. 문화 대표자 진영에 자신의 입장을 내세운 반면 군국주의 입장과는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1943년 발표한 <시마사키 후지무라 씨(島崎藤村)>에서 그는 후지무라 씨와 생전에 교집합했던 일들을 회상하며 이렇게 썼다.

오늘 오전 신문을 보니, 갑자기 『중화사 도쿄 (中和社東京)』 22일 전보로 시마자키 후지무라 씨가 오늘 오후 0시 30분에 7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하다. 갑자기 봐도 별로 놀라지 않지만, 절박하게 느껴지는 쓸쓸함…… 총계 내가 후지무라 선생을 처음 만난 것은 갑술년이었다. 그때 그는 서른여섯 살이었다. 마지막에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일흔 살이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상은 마치 노(老) 철인(哲人) 같았다. 후지무라 씨는 동아시아 문학계의 대선배로서 문장과 지혜가 우

리보다 훨씬 뛰어나다. 만날 때는 경의를 표할 뿐,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와 같은 전선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평소에 매우 친밀감을 느꼈다. 그러다 보니 서거 소식에 공황에 가까운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풍우담 (風雨談) 1943년 제7호>

1943년에 발표된 이 글은 전선의 문제를 언급했는데, 앞의 글은 주작인은 일본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 번 설명했다. 후지무라 선생도 바로 이런 종류의 대표였다. 그는 후지무라 선생을 자신의 문화 진영에 귀속시켰다. 후지무라 선생의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 적막감과 공황을 느꼈다. 쓸쓸한 것은 후지무라의 새 작품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이고, 공포는 자신의 문화 진영 동료의 위박 적은 상황에서 한 명이 더 없어졌기 때문이다. 1943년까지 주작인은 이미 일본 괴뢰 정부의 위직에 있었다. 하지만 주작인은 여전히 문화 독립의 입장에 서 있다.

1919년부터 일본의 문화에 대한 주작인의 입장은 중립, 즉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였다. 항일과 친일 모두와 달리 제3의 입장에 속한다. 1925년 전후는 주작인은 신문에 일본 정치를 비판하는 기사를 가장 많이 실었던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일본 문화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 문화의 발전 역사를 알고 중국 문화의 발전 경로를 비교해보니 일본이 중국보다 30년 앞서 있었다. 향후 30년간 중국 문화의 발전 경로를 일본과 같이 예고하는 것이다.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때 주작인의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은 분화되어 있다. 문화적 입장에 대한 독립성은 정치적 입장에 대한 비판과 모순되지 않는다.

동병월(董炳月)은 <주작인의 “국가”와 “문화”(周作人的“國家”和“文化”)>의 연구에서 1920년대 주작인의 개인적 의식에서 “국가”라는 개념이 새로운 분해와 구성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적인 국가는 “사람, 땅, 시”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정신”의 국가는 그 세 가지를 능가한다고 봤다. 애국이 정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국가가 정부(정치적 실체)보다 더 풍부한 존재 형태를 획득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신적 국가”의 가치에 대한 강조는 국가가 구체적인 형태 밖에서 추상적 형태를 획득하게 만들었다(董炳月,2000). 주작인이 정부 차원의 국가에 대해 이런 회의와 소외를 지속하게 만들었다.

1920년대 중반 주작인의 문화적 입장은 정부 위에 군림하여 정치적 입장에서 독립한 일종의 문화적 독립의 입장이었다. 1930년대 중반, 일본과 중국의 모순된 정치 시국과 중국에서의 일본 문화의 모순적 상황에서 주작인은 4편의 <일본의 관규지견 (日本管窺)>을 발표했는데, 이는 일본 문화와 일본 생활에 대한 고찰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그를 문화적 매국노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의 문화적 입장은 여전히 독립성, 즉 친일하지 않고 일본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제3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940년 일본의 괴뢰정부 고문직을 맡은 주작인은 1942년과 1943년 발표한 두 글에서 보여준 일본 문화의 입장은 여전히 독립적이다. 주작인은 1919년부터 1943년까지 배일과 친일의 대립을 겪으면서 일본의 문화에 대해 일관되게 입장을 취했다.

2. 주작인의 일본 생활 및 일본어 교육에 대한 인식

1) 일본생활에 대한 인식

주작인은 일본에서 6년간 유학했고 아내도 일본인이며 일본 생활에 대해서도 애정을 드러냈다. 도쿄를 제2의 고향에 비유할 정도다. 일본 생활을 다룬 글도 썼고, 도쿄 생활에 대한 추억도 있고, 일본의 의식주에 대한 문화적인 고찰도 있었다. 1935년 발표된 <일본의 관규지견2 (日本管窺)>는 일본인의 의식주 문화를 많이 다루고 있다. 일본의 주택과 내부 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나는 이런 일본식 집을 매우 좋아한다. 이것은 결코 고대의 풍습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위에서 말한 그런 앉는 방법은 정말 곤란하다, 나는 정식으로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없다, 만약 관녕(管寧)처럼 몇 개의 방석을 깔고 앉아도 10분도 안 되어 두 발이 마비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역시 그 집의 적합성인데, 특히 간이생활에 편리하다.....4석 반³¹⁾ 1실은 면적이 겨우 81제곱미터에 불과하고, 네 벽은 텅 비어 있고, 다음 숙소는 창상 한 개만 제공되고, 작은 침대를 사서 창문 아래에 놓고, 방석 두세 개만 있으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글을 쓰면 앞뒤 좌우에 모두 빈 공간이 있고 종이를 놓을 수 있는데, 이는 큰 책상과 같으며 손님들이 와서 앉을

31) 일석. 한자리 놓는 공간을 말하다. 출처: 《旧唐書·后妃傳上》

수 있는 공간이며, 예닐곱 명이 붐비지 않고 피곤할 때 아무렇게나 눕는다. 따로 소파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밤늦게 벽주방에서 이불을 꺼내 펴면 바로 잠을 잔다. <국문주보 (國聞周報) 1935년 12권 25호>

일본에서는 토목공사가 끝나 돛자리를 깔고 창을 붙이면 살 수 있다. 부족함이 없고, 게다가 산뜻하고 소탈한 느낌이 든다. 옛날 일본 여행에서 요시마쓰 다카나베 같은 산촌에서 묵으며 여관의 소박한 한 실내에 앉아서 창가에 기대어 산을 보거나 유카타를 입고 자리에 누우면 차 한잔을 얻어먹곤 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묵어왔던 서양식 중국식 여관보다 편안하고 간단하며 비용도 적게 드는 것이었다. <국문주보 (國聞周報) 1935년 12권 25호>

일본의 주택은 간결하지만 간이생활에 적합하다. 방 안에는 시설이 많지 않았고, 면적도 비교적 작았다. 그러나 집 안의 시설이 작아 책을 읽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많다. 주작인의 단순하고 편안한 주거 스타일은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고 차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는 문인 우아한 삶의 정취를 선호하고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는 것을 통해 일상 생활의 예술화를 달성하고 삶을 예술화하여 여유롭고 조용하며 매우 삶의 정취가 있는 미적 감각을 조성한다(裴亞蒙, 2022).

일본은 당나라 시대에 의관 개혁으로 보통의 바지통에서 넓어지고 결국 바지통이가 점점 커져서 지금은 바지가 거의 치마에 가깝다.....지금의 기모노는 옛날부터 “작은 소매”라고 했는데, 소매는 작고 바닥이 등글며 오늘날에는 깊고 넓다. 수건, 종이 등을 내려놓을 수 있다, 중국 승려가 입는 것과 비슷하다..... 이 나막신도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작년 여름에 나는 도쿄에 가서 지진 때 훼손되지 않은 본향(本郷)에 가서 숙박을 하고, 밤에는 기모노와 나막신을 신고, 제국대학을 산책하고, 헌책방과 노점을 둘러보았다. 매우 편안했다. 만약 양복을 입는다면, 특히 그렇게 더운 날에 어색함을 느낀다. <국문주보 (國聞周報) 1935년 12권 25호>

일본의 문화는 중국 수나라와 당나라에서 기원하였다. 나막신은 일본 민족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기모노와 나막신을 신으면 거리를 돌아다닐 때 가장 자유롭고, 서양 의상은 어색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편안함을 덜 느낀다. 일본의 주택이 보여주는 여유감에 대응해 일본의 복식문화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특성을 보여준다. 일본의 복식문화와 주택문화도 통일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모노와 나막신은 자유자재로 주택의 단순하고 편안한 거주성에 대응한다. 주작인의 눈에는 일본의 문화처럼 조화와 여유로움이 있다.

내 고향은 가난하고 사람들은 하루에 세 끼를 먹으려고 노력하고 취두부만 반찬으로 먹기 때문에 짠맛과 냄새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름진 것을 좋아하지 않아 일본에 가서 무엇을 먹어도 문제가 없다. 어떤 것은 고향 음식과 비교할 수 있고, 어떤 것은 중국 어딘가의 어떤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재미있다.....미소국, 미소와 된장, 우영과 아스파라거스가 비슷한 음식이다. 또 단무지는 복건성(福建省) 황토 무, 닛토의 중국에서 유사한 소금에 절인 두반장과 유사하고, 곤약은 쓰촨성 흑두부, 회는 광둥성 생선, 초밥은 고대 생선이고 그 제조법은 『제민요술(齊民要術)』³²⁾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사이에 문화 교통의 역사를 담고 있어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가족 잔치는 비교적 풍성하지만 여전히 담백하고 여전히 야채와 생선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있지만 광범위하지 않고 살코기만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지지 않다. <국문주보(國聞周報) 1935년 12권 25호>

자신의 고향 음식에 비해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일본 음식이 고향과 가깝고, 일본 음식도 중국과 비슷한 음식이 많다. 닛토의 중국에서 유사한 소금에 절인 두반장과 유사하고 회는 광둥의 생선과 유사하다. 일본 음식에는 중국과의 문화 교류의 역사가 담겨 있어 먹음과 동시에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

이런 재미는 하늘의 이야기와 꽃, 새, 벌레, 물고기의 한적한 산문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음식 산문에는 문인들의 우아함, 민속적 흥미, 문화적 이취, 그리고 후한 정취가 표현된다(裴亞蒙, 2022). 주작인의 음식 재미는 그의 산문 스타일에도 나타나는데, 일본의 의식주 문화와 그의 산문 스타일에도 맞는 점이 있다. 일본의 의식주를 좋아하는 데는 개인적인 취향도 있다.

1936년 발표한 <도쿄를 그리워하다(懷東京)> 두 편에서는 도쿄에서의 생활을 회고한다. 제1편은 <일본의 관규지견 2(日本管窺)>에 나오는 일본의 의식주에 대한 묘사를 인용한 것이다. 두 번째 편은 그가 도쿄에서 오래 다녔던 서점을 회상하는 것이다. 주작인이 평생 교제한 여러 가지 서점 일본 도쿄의 마루젠 서점 외에 고택민 사부로(小澤民三郎)의 사가미야 헌책방이 그의 문학 번역 인생에도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張翔, 吳萍莉, 2019).

나는 도쿄의 일본 생활, 즉 일본의 고전적인 의식주를 좋아한다. 그 밖에 신간과 헌책을 사는 즐거움, 일본 하시마다 혼고(橋神田本郷) 일대의 양서와 서신 각 가게, 잡지 가판대, 주막, 밤낮으로

32) 『제민요술(齊民要術)』 북위(北魏) 말기(서기 533년-544년)는 북조 북위 시대 중국 농학자 가사협(賈思勰)이 지은 종합 농학 저서이자 세계 농학사의 전문 저서 중 하나로 현존하는 최초의 완전한 농서이다.

돌아다니며 지칠 줄 모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니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고향에 돌아가면 이런 즐거움은 없어지다. <우주풍 (宇宙風) 1936년 25호 >

도쿄의 생활은 주작인의 기억 속에 아름답고 여유로운 것으로, 낚시를 하러 갈 수도 있고, 지겹지 않는 야시장, 좋아하는 서점, 잡지 노점을 돌아다닐 수도 있다. 고향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다. 도쿄 생활에 대한 그의 애정이 묻어나는 대목으로 일본인에 대한 그의 생활 풍습에서도 나타난다.

도쿄의 서점 하면 마루젠 주식회사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번역하면 마루젠 유한회사다.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 책이라는 부분뿐…… 나는 마루젠에서 책을 산 지 이미 30년이 되었다. 단골 손님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매출은 아주 미미하지만, 후에 또 일본어로 된 중국 헌책을 사려고 하면 지갑이 점점 얇아진다. 그러나 이 점의 서양서는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마루젠은 비록 하나의 법인이지만 나에게는 스승과 벗의 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그리스에 관한 여러 강의는 모두 나에게 즐거운 소일거리와 확실한 가르침을 주었고, 거의 모두 마루젠에서 얻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스의 『성심리에 대한 연구』³³⁾ 7권이며 이것은 나의 계몽적인 책이다. 읽고 나로 하여금 눈 위의 비늘이 갑자기 떨어지게 하여 인생과 사회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게 했다. <우주풍 (宇宙風) 1936년 26호 >

일본의 서점에서 주작인은 그의 계몽의 책, 엘리스의 『성심리에 대한 연구』는 이후 그의 인생관과 문학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문학적 심리의 영향과 융합은 주작인의 엘리스에 대한 존경과 그의 작품에 대한 연구로 나타나고 있다(沈倩, 2012), 서점은 서점이 아니라 친구나 선생님에 가깝다.

일본의 복식문화와 주택문화도 통일된 조화를 이뤘다. 기모노와 나막신은 주택의 쉽고 편안한 주거성에 자유자재로 대응한다. 주작인의 눈에는 일본 문화처럼 조화롭고 여유로웠다. 주작인 일본 음식과 주택, 복식에 대해 고찰한 것은 일본 문화에서 중국과 친근한 부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식의 경우 일본과 중국이 비슷한 음식을 선택해 비교했고 문화의 기원을 고찰하는 부분에서 유사점을 찾았다. 이런 문화에 대한 친근감에서 도쿄는 제2의 고향처럼 도쿄의 삶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주작인은 일본의 의

33) 엘리스(Henry Havelock Ellis, 1859-1939)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영국의 유명한 성심리학자, 사상가, 작가, 문예평론가.

식주 문화를 문화적으로 고찰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며 삶에 대한 애착을 보였다. 문화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인식 관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나타나는 특성도 인정받고 있다.

2) 일본어 교육에 대한 인식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 문화 발전 연구에 중요한 참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일본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일본어에 대하여 (關於日本語)>에서 일본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일본 고금의 문화는 확실히 중국과 서양에서 재료를 얻었지만, 조정을 거쳐 그 자신의 것이 되었다. 로마 문명이 그리스에서 유래한 것처럼, 우리는 일본 고유의 문명이 예술과 생활 방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중국은 그것을 일종의 민족문명으로 간주하여 공평하게 연구하는 것 외에도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자국의 고금문화를 연구하기에 충분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은 작은 그리스라고 불리는데, 그의 특색은 확실히 그리스와 비슷하고, 중국과의 문화적인 관계는 더욱 그리스와 로마와 비슷하며, 선진국의 문화를 보존하거나 동화시켜 발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본에서 많은 자료와 참고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중국과 최근 문학과 마찬가지로 서양의 영향을 받아 비교해보면 거의 일치하지만, 일본은 이번에 선진국이 되어 중국이 늘 뒤쫓고 때로는 의도치 않게 모방하는 등 우리에게 좋은 비교와 반성을 주고 있다. <일본문와 일본어(日文与日語) 1935년 제2권 제1호 >

일본 유학 중에 그리스 문화를 연구한 주작인은 스스로 문학에 대한 개인적 취향을 밝혔지만, 서양 문학을 연구하는 목적은 문학사상을 통해 중국인의 국민사상을 계몽하려는 것이었다. 그리스 문학을 공부하면서 일본 문학을 이해했다. 주작인의 고대 그리스 문화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 중국 전통 문화의 체계적인 감별과 비판을 통해 국민적 문화와 자질의 변혁을 실현하는 데 있다 (蔣保, 2005). 그리스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구분과 비판을 위한 것이라면,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 근대문화 발전에 참고할 만한 것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일본 고대의 문화는 중국에서 왔으며,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문화를 흡수하여 자신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다. 중국도 배울 점이

많다.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보급이 필요한 교육이 되었다.

결국 나는 일본어를 배우자는 주장이다. 나는 중국에서 공부하고 자금이 있으면 일본에 가서 공부할 것을 주장한다. 일본어를 배우는 데는 국립외국어학교나 대학 전문학부가 좋고 사설도 나쁘지 않다. <일본문와 일본어(日文与日語) 1935년 제2권 제1호>

그는 학교에서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전문학과를 만들고, 일본 유학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어를 공부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중 학생을 틀리기 쉽고 소홀히 하기 쉬운 문제들을 지적하였다. <일문총담4: 일본 화본 (日文叢談4: 日本話本) >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인이 일본문을 배우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첫 번째 큰 어려움은 일본문에 한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일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견해는 틀린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한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본문을 배우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다, 아니, 때로는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사실 그것이 외국어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움도 생겨났고, 결과적으로 학습이 성공하지 못했다.....만약 일본 문자에 한자가 없다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 한자를 너무 신뢰하지 말고, 오히려 일본 본문을 새롭게 인식하여 순수한 외국어로 배우기를 바랄 뿐이다. < 일본문와 일본어(日文与日語) 1935년 제3권 제2호 >

일본어에 한자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나 일본어를 배우려는 사람은 비교적 쉽다고 생각하고, 일본어를 하나의 독립된 외국어로서 배우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학습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 일문총담 3: 일문한독법 (日文叢談3: 日文漢讀法) >에서는 일본어를 배우는데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몇 주일 동안 일본어를 배운 사람은 아마 여전히 많을 것이다. 나는 이 일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다. 일본어 외국어의 일종인데, 비록 많은 한자가 섞여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그다지 좋은 점이 없다. 그래도 우리는 매일 읽고, 시간을 들여서 공부해야 효능을 볼 수 있다. 나는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는 학습자들의 기세를 꺾는 것이 두렵지 않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보정을 여러분에게 보고하고, 내 생각에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일본문와 일본어(日文与日語) 1935년 제3권 제1호 >

일본문화에 대한 주작인의 긍정은 일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그의 태도를 긍정적이고, 중국의 일본어 학습자가 많을수록 일본문화가 중국에 더 널리 퍼질 것이다. 그가 일본의 문화를 연구한 것도 일본 근대 문화의 장점을 배우고 중국 문화 발전에 참고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입문은 일본어를 배우는 것이고, 일본어를 능숙하게 익혀야 일본 문화를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다. 일본 문화의 발전 역사로부터 경험을 받아들여 중국 근대 문학의 발전을 진흥시키다. 일본 문화 인식과 일본어에 대한 학습과 교육과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나타나는 특성은 격려이다.

3. 주작인 일본 정치적 입장에 대한 인식

주작은 1925년부터 1927년까지 일본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 글을 발표해 8편의 자료를 수집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 정부의 언행에 대한 비판이다. <일본 낭인과 순천시보(日本浪人与順天時報)>에서 주작인은 일본의 낭인과 『순천시보(順天時報)』³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순천시보(順天時報)』에 관해서는 내가 늘 없애야 할 것을, 만약 일본이 중국에 대해 만분의 일이라도 호의가 있다면 말이다. 나는 결코 일본신문이 어떤 난폭한 언론을 발표한 것을 탓하지 않는다.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일본어로 쓰여진 것이라면, 그들이 자기 동포에게 쓴 것은 비록 우리에게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별 상관 없다. 하지만 한문으로 중국 본토에서 발행된다면, 그것은 다르다, 분명히 우리에게 쓴 것이다, 신문에는 또 입버릇처럼 다정하게 "우리나라"라고 부르지만, 관점은 완전히 일본 사람이다. 이익이 다르거나 반대되는 외국인들의 기준, 중국을 지도하는 일을 비판하는 것, 정치외교에서부터 사회가 족, 사상도덕의 문제를 논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순천시보(順天時報)』 혹은 다른 신문 모두 일본 군벌정부의 기관이다, 제국의 시각으로 일부러 우리를 교화시키는 신문이다. <어사(語絲) 1925년 51호>

일본 낭인과 『순천시보(順天時報)』는 태도가 난폭하다. 일본 낭인들이 중국에서 횡포를 부리며 중국인을 억압했다. 『순천시보(順天時報)』는 일본 정부의

34) 1901년(광서 27년) 10월 창간된 일제는 중국 침략에 맞춰 문화침략의 일환으로 일본 외무성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중문신문이다.

기관지로서 중국의 당시 사회와 정치 등 각 방면에 대해 한자로 발표하고 논평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여론을 유도한 신문으로 중국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주작인은 자신이 이 두 가지 존재를 혐오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썼다.

솔직히 말해서 일본은 내가 사랑하는 국가 중의 하나인데, 고대 그리스도 그 중 하나였듯이. 나는 일본과 그리스에 대해서와 같이, 아무런 연구가 없지만, 나는 그것의 모든 것을 좋아한다…… 내가 아무리 일본을 좋아해도 내 의견은 보통 일본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고, 그들의 언행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분한 것은 그것이 중국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고, 미운 것은 일본에 대한 나의 동경을 흔들어서 놓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꿈이 깨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성인(聖人)이 아니니 사랑과 미움, 소중함이 없을 수 없고 세상에 이런 뜻대로 되는 일은 없다. 즉, 기쁨의 감정만 있을 뿐 미워하고 아끼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나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해 나갈 뿐이다. 귀여운 것은 사랑하고 미운 것은 밉다. 친일이든 일본을 배척하는 것이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길일 수도 있다. <여사(語絲) 1925년 51호>

자신의 중국인 신분으로 일본의 정치적 입장에 반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문화에 대한 인정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사랑을 무시할 수도 없다. 일본 낭인과 『순천시보(順天時報)』 같은 존재가 주작인의 내면적 갈등을 증폭시킨 것이다. 그래서 글의 마지막에 그는 “사랑한 것은 사랑하고 미운 것은 밉다. 친일 같기도 하고 일본을 배척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말이다. 사랑이란 그가 인정하고 좋아하는 문화의 부분이고, 가증이란 일본 낭인과 『순천시보(順天時報)』 등 모든 군국주의의 침략자를 말한다. 이 두 가지 존재에 대응하여 그가 친일과 배일이 함께 존재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이 그가 당시 생각했던 유일한 실행 가능한 길이였다. 여기서 말하는 친일은 친일문화, 배일은 정치적 입장에서 일본을 배척하는 것이다. 1926년 발표한 <일본인의 은혜(日本人的恩惠)> <일본은 중국의 적이다(日本是中國的仇敵)> 두 글에서는 일본이 중국의 내란을 조장하고 군벌 세력을 지지하는 것을 비판한다.

일본이 자금과 각종 편의로 봉군을 보내어 중국의 내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이며, 나는 『순천시보(順天時報)』와 그 공동 논조의 화교신문이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아도 결코 한 손으로 천하의 눈을 가릴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은혜는 이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되

었는데, 봉계군벌(奉系軍閥)³⁵⁾과 친일의 고등화인을 공경하는 것 외에 내란을 조장하고 악한 세력을 육성하는 이 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동양문명이 감싸고 있는 가장 검허한 민족일지라도 적어도 일본이 조장하는 내란이 끝나지 않은 동안 일본이 키운 악한 세력이 소멸되지 않은 동안 일본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 보답해야 한다. 이 운동은 그때서야 비로소 멈출 수 있었는데, 그때 중국이 흥하기 시작했거나, 완전히 멸망했거나, 아니면 일본 스스로 개혁이 있었다. <국민신보 부간(國民新報副刊) 1926년 51호>

나는 일본이 시시각각 중국을 모해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결코 환상만은 아닙니다, 작년에 일본이 곽송령(郭松齡) 군의 전진을 막고, 장작림(張作霖)을 도와 곽송령을 무찌르고, 천만을 빌려 봉군에게 두 번 입관하도록 했다.³⁶⁾ 이경림(李景林)을 도와 싸웠고 산둥으로 들어가도록 보호했다. 이제 와서 봉계 군벌을 끌어들이어 다구(大沽)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내가 보기에 그 중 어느 것도 “5·30” 사건 보다 열 배 더 중요하며, 중국의 존망과 직결되므로 중국 국민은 극력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일본 국민과 악의가 없고, 일본의 문화에 대해 상당한 존중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군벌 자본가의 수중에 있는 일본은, 중화민국의 성장에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을 배척하는 일은 중화 국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경보부간(京報副刊) 1926년 440호>

1925년 중국에서는 “5·30 사건”이 일어나 중국의 반제국주의 운동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1926년 “3.18 사건”이 또 발생해 단기서(段祺瑞)³⁷⁾이 군벌 정부는 인민을 유혈 진압했다. 이런 시국에 주작인이 군벌에 대한 호감이 없을 수밖에 없고, 일본은 봉계 군벌(奉系軍閥)을 후원해 왔다. 군벌 싸움에서 중국의 내란을 부추겼고, 문화적으로는 『순천시보(順天時報)』 같은 일본 기관지가 한자로 신문을 발행해 사실을 왜곡하고 대중을 현혹했다. 이 은혜는 사실 원한의 반대말이다. 보답의 방식은 저항이다. 이런 내란 조장 행위는 “5·30 사건”보다 열 배나 심각한데, 이는 중국 전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제국주의 반대운동의 절정인 주작인의 일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한 비판도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3.18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회에서 주작인은 “헛

35) 북양 군벌(北洋軍閥) 계파의 하나이다. 장쥘린(張作霖)을 우두머리로 삼다.

36) 1925년 “5·30” 사건에서 일본과 북양 군벌은 중국 인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장쥘린(張作霖)은 일본과 협력해서 전 국민의 불만을 샀다. 원래 장쥘린(張作霖)의 부하였던 귀송령(郭松齡)은 장쥘린(張作霖)의 부름을 받아 일본에서 귀국했지만, 장쥘린(張作霖)과 협력하는 것을 반대하고 내전을 계속하고 싶지 않아 장쥘린(張作霖)에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37) 단기서(段祺瑞, 1865-1936)는 중화민국 시대 안후이계 군벌의 수령이다. 1926년 3월 18일 단기서(段祺瑞)가 정부가 베이징 학생운동을 탄압한 “3·18” 참사가 일어났다.

되이 죽고 죽는다.” 이른바 혁명정부는 제국주의와 같은 것이었다는 당시 사회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했는데 당시 정부와 일제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주작인은 여전히 민족주의자였다. 이때 그의 민족주의 정서는 바로 일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표출된 것이다. 주작인이 제국주의를 배척한 것은 그가 중국인이기 때문이지 애국심과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중일문화협회의 존재는 불합리하다.

일본은 진정한 제국주의의 국가이다. 지금 우리의 임무는 일본 불신의 씨앗을 퍼뜨려 대다수 인민의 가슴에 뿌리 깊은 저항사상을 심어주고, 일본에 저항하는 힘과 모든 내외의 압박에 저항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일본 국내에도 자연히 현명한 사람이 있어 정치와 경제의 변혁을 꾀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우리의 친구였으니, 우리는 그와 악수를 하고 싶다. 그러나 그런 각오와 용기가 적국에 직접 맞서 일본의 개혁세력을 간접적으로 부축하는 칼이 없다면 우리도 자격이 없다. 중국과 일본이 공존하고 번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진정한 중국·일본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항구적인 항일운동이 불가피하다. <경보부간(京報副刊) 1926년 440호>

“중일문화협회(中日文化協會)”라고 불리지만 식민지적 성격을 띠고, 당시 중국에서 활동한 것은 모두 일본 정부의 제국주의 침략자들이었고, 주작인은 이들의 발언이 전파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중일문화협회(中日文化協會)”란 문화의 이름을 빌려 식민사상을 전파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해체되었다. 하지만 일본 국내 현명한 사람은 적이 아니라 친구다. 중국이 정말 강해야 일본과의 공동번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정말 멍하니 있는 건지 아니면 가짜 바보인 건지 (是真痴還是假呆)>에서 주작인은 일본 정부의 어용 문인들이 중국의 정치 시국을 왜곡해 제국주의적 침략 야욕을 드러낸 것을 비난한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화가 난다! 내가 화가 난 것은 일본인(특히 일본 정부의 앞잡이, 어용의 독서인)의 야심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그들은 중국을 침략하고 싶지 않은 곳이 없다, 이 『노동력 문제』라는 책은 또한 그들이 중국을 침략했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이 책에서 중국 공산당을 언급하는 것은 중국의 노동자 학생, 군벌 학자 대부분이 이미 “적화”(赤化)³⁸⁾했음을 암시한다. 나는 그와 같은 저서가 비록 스스로 “충실한 연구”라고 말하지만, 목적은 중국인이 참고하고 일본인이 중국을

38) 공산당은 붉은 기를 표지로 삼는다. 해방 전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나 공산당의 영향을 받아 “적화”라고 불렀다.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항상 그가 일련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동기는 좋았지만 사실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나는 적어도 일본 정부가 중국인을 증오하도록 부추기는 선전물인 줄 알았다! <경보부간 (京報副刊) 1926년 427호>

이 글에서 언급한 『노동력 문제』라는 책은 사회주의 사상이 도입된 이후 중국이 일으킨 노동운동의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중국의 “아나키스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활동과 노동자들의 파업운동 상황을 다루고 있다. 당지요 (唐繼堯)는 텐계 군벌(滇系軍閥) 39)의 수장이고 장항후(江亢虎) 40)는 사회당의 창시자이자 무정부주의자라고 언급하며 그들을 공산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중국의 노동자와 학생 군벌은 모두 “공산당화(共産黨化)”되었다고 말했다. 주작인은 이를 헛소리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인의 중국 이해를 돕는 책이라고 주장하는 왜곡된 책은 일본 국민을 오도하고 일본 정부의 중국에 대한 증오를 부추길 뿐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일제의 문화 침략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 비판하는 것이 일제의 침략 야망이다. 일본의 중국 침략 동기에 대해 일본은 왜구가 일본식 호칭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하고, 주작인은 이를 문화적으로 고찰했다. 주작인은 이에 대한 문화 고찰을 하였고, 1926년 『어사(語絲)』에 발표된 <지나와 왜구 (支那与倭)> 는 왜구의 “왜”자에 대한 해석을 하였다.

『한서지리지 (漢書地理志)』에는 “낙랑해 (樂浪海)”에는 왜인 (倭人) 이 있어 백여 개국으로 나뉜다. 일본을 “왜”라고 부르는 것은 당나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허군(許君)은 한나라에서 태어났는데, 만약 왜자 (倭字) 가 “몸집이 작은 동양 난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는 김에 한마디 하자. “구(寇)”자를 붙인 것은 당나라 이후이다. 왜구의 기원은 일본 남북조 시대, 서력 14세기 중반, 중국은 원나라 말기로 당나라가 망한 지 이미 450년이 되었다. 일본의 침략이 당나라의 한 글자 때문이라면 정말 억울하다, 내가 대신 변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인이 “왜자”를 컴받침에 새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옛 자전을 몇 부 찾아보니, “원래를 말하는 것은 치욕이다”라는 것도 쉽게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전에 왜라는 글자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한일자전인데, 대개 왜인, 고대 지나에 일본인에게 부르는 명칭이라고 쓰여 있다. “왜”자를 중

39) 텐계 군벌 (滇系軍閥) 은 서남부 군벌 계파 중 하나이다. 신해혁명 후, 전전계 군벌은 초기에 당지요 (唐繼堯) 우두머리로 삼았다.

40) 장항후 (江亢虎) (1883-1954)는 중화민국 시대의 유명한 문화학자이자 정치인이자 중국사회당의 창시자이자 아나키스트이다.

국 침략의 원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어리석음인데, 그 근거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다. <어사(語絲) 1926년 111호>

한 글자로 한 나라를 침략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주작인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행위에 분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황당하기까지 했다. 그 전부터 일본 문화를 알고 도쿄에서 6년째 살고 있고 아내도 일본인이다. 일본의 문화적 입장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때의 정치적 입장과 교차하여 나타나는 모순성이 극심하면서 일본의 문화에 대한 인정 할수록 일본의 침략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1920년대 중반 일본 정치를 배척하는 글이 쏟아진 것은 극심한 갈등의 산물이었다. 그래서 1920년대 중국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에는 배일 감정도 격렬해졌다. 중국에서 주작인의 항일 연구에 주목한 글 중 하나가 <배일평의(排日平議)>는 일본의 논평을 배격한다는 뜻으로 1927년 발표됐다. 글에는 다음과 같은 급진적인 발언이 많다.

일본제품을 배척하는 것이 중국 자신의 자살 정책인지 아니면 일본자본가에게 얼마의 손해를 줄 수 있는지는 어쨌든 중국에서는 지금 마땅히 실행해야 할 방책이다. 그러나 그 밖에 적극적인 근본방향이 있어야 한다. 중국 지식인은 일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워야 한다. 일본의 유산계급, 군인, 실업가, 정치인, 언론가 및 일부교육가는 중국의 “낭인” “지나통”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두 제국주의자이다.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곤란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이 중국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사(語絲) 1927년 139호>

일본을 “가장 위험한 적”에 비유한 이 글은 글자 그대로 일본 전체가 중국의 적이 됐다는 의미지만, 사실 주작인은 군인 정치인 언론계 등 제국주의 사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일제에 대한 태도는 혐오스러워하며 언사도 격렬할 수밖에 없다.

나는 학문예술의 연구가 정치를 초월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식계급은 적어도 일본에 군인내각이 있고, 출병 및 반동세력 부양을 대중국 방침으로 하는 시대에 일본을 배척하는 것을 고취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문화적 논의에 힘써 진정한 “중·일 공영(中日共榮)”을 실시하는 것은 편파적인 방법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결국 감정의 동물이다. 나는 이성이 때때로 감정에 의해 승리할 수 있고, 학술연구는 정치외교의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 유럽전쟁 때 중국이 독일어를 경

멸했던 것처럼, 그것은 정말 중국 문화 진보의 손실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순간 일본의 연구가 좌절될까 봐 일본을 배척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서는 안 된다. <어사(語絲) 1927년 139호>

감정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자를 배척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문화연구도 정체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강한 반제국주의 운동의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입장과 문화적 입장의 갈등 속에서 정치적 입장의 성향이 더욱 짙어지자, 주작인은 일본을 배척하면서 문화적 입장을 잊지 않고 제기하였다. 그는 일본의 입장을 문화와 정치라는 두 차원을 벗어나면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1937년 주작인은 마지막 편 <일본의 관규지견(日本管窺)>를 발표해 정치 정세의 원인을 종교적으로 분석했다. 일본 민족에 관한 모순 현상, 즉 일본인은 미를 사랑하고 모든 미의 사물과 자연을 숭배하고 의식주에서 보듯 중국에 추악한 짓을 많이 한다. 일본인은 예술회화에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이 빠르지만 중국에는 모든 것이 서툴다. 일본인은 청결을 좋아하지만 중국에 대해 더러운 일을 많이 한다. “티베트 사건(藏本事件)”⁴¹⁾ “허베이 자치 사건(河北自治事件)”⁴²⁾ 마약 판매 등 당시 정치 사건의 예를 들어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한다.

일본 민족은 밝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그렇다면 이러한 예는 중국에 대한 행동이 모두 어둡고 외설적이며 왜곡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무슨 연유일까? 평소에 일본문화만 보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실에 대해 매우 의아해해야 한다. 백 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것은 문화적인 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미 이 문제를 꺼낸 이상 옳든 그르든 한 가지 해석이 있어야 한다. 문화 방면의 길이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그럼 반대편으로 가보자, 나는 여기에서 어쩔 수 없이 “반문화(反文化)”설을 제기하여 해명할 수밖에 없다. <국문주보(國聞周報) 1937년 제14권 25호>

이런 모순된 상황에 대해 주작인은 문화적인 일이 아니며 일본의 문화권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래서 반대편, 즉 “우파” 반동자에게 눈을 돌린다.

내가 보기에 일본의 현재 상황은 완전히 반동적인 국면이다, 분석하자면 그 원인은 두가지가 있다,

41) 1934년 6월 8일 난징(南京) 주재 일본 영사관 부영사였던 티베트 히데야키(藏本英明)가 영문도 모른 채 실종되면서 중일 관계는 더욱 긴박해졌다.

42) 1935년 일제가 중국에서 책동한 허베이성(河北) 동부에 괴뢰정권을 세운 사건.

하나는 반중국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반서양 문화이다, 즉 메이지 유신에 대한 반동이다……현대 생활만 놓고 보면 한문화(漢文化)의 억압은 아직도 역력하다. 예를 들어 글자를 들자면, 한문은 지금까지도 중학생이 필수로 이수하고 있으며, 한자는 도처에 널려 있다……붓과 젓가락은 같은 계통인 것 같은데, 일본도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예술과 생활에서 많은 일들이 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성취는 자연히 높고 낮음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문화의 빛은 점점 일종의 억압으로 느껴질 것이다. 특히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고 “채무자”는 이미 초라했다고 말했다. <국문주보(國聞周報) 1937년 제14권 25호>

반동적인 국면은 주로 반중국 문화, 그 다음으로는 반서양 문화이다. 전자는 일본 고대의 문화를, 후자는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받아들인 서양 문화를 의미한다. 한자, 젓가락, 붓의 사용은 일종의 문화적 억압이 된 것 같다. 중국은 이때 이미 쇠락해 일본 반중국 문화의 물결을 일으켰다. 주작인이 여기서 언급한 “반동우파”는 자신이 인정한 일본 문화층을 분리한 것이다.

일본의 상층 사회 사상계에는 중국의 유교와 인도의 불교가 수용되어 있고, 최근에는 서양의 철학과 과학까지 더해져 일본 민족의 근본신앙은 남양에서 온 신도교와 같다. 그가 국민의 사상 감정을 지배해 온다면 소수의 현명한 철인은 때로 이탈할 수 있지만 조금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서화미술 등 중국 계통의 문화를 서양인에게 보여주고, 기계병기 등 서양 계통의 문화를 중국인에게 보여준다. 특유의 신도교 정신은 내세우지 않고, 남들은 별로 주목하지 않지만, 사실 이것은 크게 표창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우경 운동을 위한 영혼을 찾는다면, 이것은 국가의 정수라고 해도 무방하다. 우리가 평소에 일본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소수의 현인의 정신에 의해 보내지는 것을 이해하지만, 전체 국민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나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고급 문화가 나타내는 사람은 종종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국문주보(國聞周報) 1937년 제14권 25호>

일본의 상층부 사상계는 중국의 유가와 인도의 불교를 수용하고 있으며, 근대에는 서양의 철학과 과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 내 당시 반동우파는 이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즉, 주작인은 문화의 현자와 반동우파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일본 민족의 신앙은 남양에서 들어온 신도교였다. 일본 상류층의 문화신앙과 민족신앙은 분화되는데, 주작인은 신도교를 극우파의 영혼으로 여기지만, 주작인이 연구하는 고급문화 대표자들은 신도교를 믿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을 분리한다는 뜻이고 일본의 우파와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보듯,

스스로도 이런 정치적 입장과 문화적 입장을 분리했다.

대동아전쟁은 동아시아 전체 민족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민족이 해방을 하지 못했을 때 일을 멈출 수 없다. 이번 전쟁은 바로 국가의 “기아와 쇠퇴”와 “민족동포 진흥”의 정신 때문이다. 필리핀과 미얀마가 평정한 후 인도도 해방이 필요한 작업이다. 인도가 해방된 후, 전체 민족해방사업은 이미 반쯤 한 후, 다시 “대동아 공동번영권” 건설에 종사하게 된다. 이것은 동아시아 해방의 기초이다. <국민잡지 (國民雜誌) 1942년 제9권 제7호>

대동아전쟁은 태평양전쟁으로, 필리핀과 미얀마의 침략 이후 대동아전쟁의 움직임을 언급한 작전계획이며, 그 다음 목표는 인도다. 여기서 말하는 대동아전쟁의 목적은 기아와 쇠락 민족과 동포의 부흥이다. 이는 노골적인 침략과 약탈을 포장하고 미화하는 것이며,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가 전쟁 미화였다. 주작인의 이 연설은 태평양전쟁의 작전계획과 작전목표를 선전하는 것이다.

세계 정세의 격변, 대동아전쟁은 동아시아의 각 민족이 도모한 것이다. 해방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누구나 실무를 다해야 한다. 화북은 동아시아 지사의 일부이고 화북 문인은 동아시아 민족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외될 수 없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지금은 청년학생과 일반 지식계급의 중심사상을 양성하여 대동아전쟁에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심사상이란 대동아주의 사상이다…… 이러한 사상이 청년 및 일반 지식계급에서 확립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하물며 대동아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때, 즉 동아시아 해방운동이 발전하던 때였다. 동아시아가 전체이고 문화의 뿌리가 전체이기 때문에 입술과 치아가 서로 의지하며 절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어렵지 않다. 이때 문화인의 사명은 대동아전쟁이 완전히 승리하고 동아시아가 완전히 해방되면 문화건설의 단계를 밟는 것이다. <국민잡지 (國民雜誌) 1942년 제9권 제7호>

앞의 글에는 주작인 본인의 의견이 없고, 일종의 선전에 가깝지만, 뒤의 이 글에서는 문화인의 사명이 어떠한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마련한 좌담회에 문화인을 인용해 태평양전쟁을 홍보하고, 중국·일본 문화의 근원을 언급한 만큼 중국인 청년과 부르주아에게 “대동아공영(大東亞共榮)”의 이념을 심어주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때 주작인의 정치적 입장은 “친일”이지 “배일”이 아니다.

1925년부터 1927년까지 일제의 침략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 8편 발표되었는데, 일본 정부의 기관지 『순천시보(順天時報)』가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일본 정부 어용 문인들은 중국의 침략에 대한 야심을 드러냈다. 일본 정부는 중국 내정을 부추겨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갈등을 격화시켰다. 악한 세력으로 조장하고, 군벌 혼전을 지원하며, 군벌과 함께 중국 노동계급 운동과 청년 운동을 잔혹하게 탄압했다. 1925년 “5.30 사건”, 1926년 “3.18 사건”이 그것이다. 중국에서 악행을 일삼는 일본 낭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동안 가장 격렬한 항일 감정을 드러냈다.

이 원인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도 주작인의 1920년대 일본론 배척이 상당 부분 그의 그동안의 민족주의 사상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주작인이 1920년대 중반 “배일론”을 대량으로 발표했던 시기는 바로 민족주의가 그의 사상 속에 우세를 차지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배일론” 같은 급진적 민족주의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許憲國, 2006). 그러나 주작인의 일본비평에는 민족적 입장뿐만 아니라 강한 일본문화적 입장, 나아가 일본입장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본문화에 대한 애정에 집착하여 종종 문화적 관점에서 일본의 정치행위에 대한 해석을 찾는 그의 일본비평은 화해할 수 없는 내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許憲國, 2007). 본문은 주작인의 문화적 입장을 분석하면서 주작인이 일본의 문화에 대해 항상 긍정적이고 문화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고, 1920년대 중반에 발표된 일본 정치를 배척하는 대량의 글은 극도의 갈등 격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의 모순이다.

주작인은 1937년 <일본의 관규지견(日本管窺)>4에서 극도의 모순된 마음이 짐과 일본 문화의 입장에 대한 인정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배척 사이의 모순을 나타냈다. 그 모순의 원인을 찾으려는 일본 민족의 고급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소수의 현자를 스스로 인정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우파 제국주의”의 정신적 신앙인 신도교를 지적하다. 자신의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을 대립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1930년대 후반 주작인의 일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글이 급진적 정치비판을 대체한 것에 대한 질문이다. 어떤 연구에서는 주작인이 주권을 상실한 채 나라를 욱되게 한 정부에 대한 원한이 극악무도한 일본 침략자에 대한 원한을 능가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주작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큰 복

병이다(袁良駿, 2011). 이 글의 연구를 보면 1943년 주작인의 대일본 정치적 입장은 친일적이었다.

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및 결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짧은 기간에 봉건국가에서 근대화된 문화·군사강국으로 급부상했고, 이후 동아시아 각국의 유학생들이 대거 몰려들어 일본을 통해 선진 서양문화를 배우려 했다. 당시 중국과 한국은 일본 유학생이 가장 많았다. 일본 메이지 유신 후 초기 중국 유학생인 주작인의 당시 일본에 대한 인식은 근대 동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발전에 많은 연구와 참고가 된다. 주작인은 “5·4 신문화운동”때 『신청년(新靑年)』 편집에 참여했고, 서양의 진보적 문학 작품을 번역해 국민 사상을 계몽했다. 또 임어당(林語堂) 등과 함께 『어사(語絲)』 주간을 창간하는 등 일부 언론 활동을 했다. 그러나 주작인의 언론 활동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아직 없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주작인 친일 연구에서 주작인의 일본 문화에 대한 입장과 정치적 입장의 관계를 모호하게 하는 몇 가지 선행 연구가 있음을 발견했다. 일본의 문화에 대한 편집적인 공감대가 있어 일본의 침략적 태도를 간과했다는 연구도 있다. 따라서 이 글은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주작인이 신문에 발표한 일본 관련 기사를 연구 대상으로 수집하여 일본의 문화, 의식주, 일본어 교육에 대한 주작인의 인식을 연구했다. 주작인의 일본에 대한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을 시간 순서에 따라 각각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우선 일본 문화에 대한 인식이다. 주작인은 일본 시의 특색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고, 하이쿠의 발전 역사를 썼으며, 일본의 익살스러운 문장과 일본 문학의 번역 상황을 소개했다.

시는 일본에서 매우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짧은 것도 일본 시의 특색 중 하나

인데, 일본어의 조화가 소박하기 때문에 일본 시도 아름답다. 시는 언어를 나타내는 예술적 표현으로, 일본어의 특색은 독특한 단시 형식을 발전시켰다. 일본의 시가 갖는 두 번째 특색은 함축이다. 그러나 이런 예술적 스타일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본 자체 문화 발전의 한 특색이다. 하이쿠의 특징도 짧고 문법적으로 완성된 문장을 구성하지는 못하지만 시의 언어 외적 의미를 표현하는데 있다. 속언을 쓰지만 재미와 정서가 넘치는 작은 시가 된다. 대부분 경치만 묘사할 뿐 순수한 서정이나 서사가 없어 독특한 역사를 만들었다.

익살스러운 문체는 일본만의 독특한 소설 문체로, 중국에는 이런 문학 스타일이 없고, 일본 스스로 이런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문체를 만들어냈다. 익살스럽다는 점에서 일본 소설은 저절로 조화와 성취가 있다. 일본 문학작품은 원문을 감상할 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일단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그 본래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사라짐으로 일본 문학 번역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중국은 당시 일본 문학작품을 읽기 시작했지만 번역된 작품은 많지 않았다. 예술은 중국의 목관화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 발원해 일본만의 회화 예술로 발전한 일본의 우키요에를 언급한다. 우키요에의 특색은 화려함인데, 주로 서민문화를 표현한 것이다.

주작인의 일본에 대한 문화적 입장에 대해 시간 순으로 연구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주작인은 1919년부터 일본의 문화에 대해 독립적이다, 즉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독립적 존재로 항일·친일과는 다르며 제3의 입장에 속한다. 1925년 전후는 주작인이 일본 정치를 비판하는 글을 신문에 가장 많이 게재한 시기였고, 바로 이 시기에 일본 문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발언이었다. 일본 문화의 발전 역사를 알고 중국 문화의 발전 경로를 비교해보면 일본은 중국보다 30년 앞서 있다. 향후 30년간 중국 문화의 발전 경로를 일본과 같이 예고하는 것이다. 그리스 문화를 연구하는 것이 중국 전통문화에 대한 감별과 비판을 위한 것이라면,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 근대문화 발전에 참고할 만한 참고 자료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때 주작인의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은 분화되어 있다. 문화적 입장에 대한 독립성은 정치적 입장에 대한 비판과 모순되지 않는다.

1920년대 중반 주작인의 문화적 입장은 정부 위에 군림하여 정치적 입장에서

독립한 일종의 문화적 독립의 입장이었다. 1920년대 중반은 일본의 정치적 입장을 비판하는 글을 쏟아냈던 시기였지만, 일본의 문화적 입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문화연구에 그친 제3자적 입장을 표명했다. 1920년대 일본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썼지만 문화적 입장은 일찌감치 밝혔고, 앞으로 자신이 “친일파”로 비판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1930년대 중반 그는 문화에 대한 연구와 인식이 정치 시국의 대립으로 개인 정서를 띤 주관적인 인식과 일본의 문화적 태도에 대해 정치적 시국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또 정치 시국을 놓고 갈등하는 심리상태는 일본 문화에 대한 입장에서도 당시 사회 현실과 대립, 의존, 대화의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일본과 중국의 모순된 정치 시국과 일본 문화를 중국에서 난처한 상황에 빠뜨린 주작인은 4편의 <일본의 관규지견 (日本管窺)>을 발표하여 일본 문화와 일본 생활에 대한 고찰을 보여주었다. 일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그를 “문화 매국노”라고 비판하게 만들지만, 그의 문화 입장은 여전히 독립성, 즉 친일적이지 않고 일본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제3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940년 일본의 괴뢰정부 위직(僞職)을 맡은 주작인은 1942년과 1943년 발표한 두 글에서 보여준 일본 문화의 입장은 여전히 독립적이다. 주작인은 1919년부터 1943년까지 항일과 친일의 대립을 겪으면서 일본의 문화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

생활에 대한 인식은 일본의 의식주에 대한 느낌과 도쿄 생활에 대한 추억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주택에 대해, 주작인은 간결하고 간단한 생활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고 차를 마실 때 여유로움이 생기며, 일본의 기모노와 나막신은 일상생활에 매우 적합하고 착용감이 편안하지만 서양 복장의 격식이나 엄숙함과는 구별된다. 일본의 복식문화와 주택문화도 통일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기모노와 나막신은 자유자재로 주택의 편안한 거주성에 대응하다. 주작인의 눈에는 일본의 문화는 조화와 한적함이 가득하다. 주작인은 일본 음식과 주택, 복식에 대한 고찰에서 일본 문화에서 중국과 가까운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특히 식생활의 경우 일본과 중국이 비슷한 음식을 찾아 비교했다. 복식과 주택문화도 마찬가지로 문화의 고찰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을 찾으려 한다. 일본 문화에 대한 친

근감이 도쿄 생활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도쿄는 제2의 고향처럼 여러 차례 언급됐다. 일본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일본 생활에 대한 인식의 관계는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으며, 나타난 특성도 긍정적인 태도로 보였다.

일본어에 대한 교육 측면에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학과를 신설하고 일본 유학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어에 한자가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하나의 독립된 외국어로서 배우지 않으면 오히려 공부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 근대 문화의 발전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일본어를 배우는 것은 일본 문화를 연구하는 기초이다. 일본 문화에 대한 주작인의 긍정도 일본어 공부에 대한 그의 태도를 긍정적이고 장려하는 태도로 보이게 한다.

주작인의 일본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대해 시간 순으로 연구하여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1920년대 중반 주작인이 발표한 일본 배척 글은 8편이다. 이 시기 일본정부와 중국 군벌이 함께 중국인의 애국운동을 잔혹하게 탄압하면서 배일감정은 중국에서 절정에 달했다. 그는 도쿄에서 6년을 살았고 아내도 일본인이었으나, 일본의 문화적 입장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이때의 정치적 입장과 교차하여 나타나는 모순성이 극심 및 일본의 문화를 인정할수록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따라서 1920년대 중반에 발표된 일본 정치를 배척하는 글이 극도의 갈등 격화의 산물이었다. 주작인은 민족적 입장뿐만 아니라 강한 일본 문화적 입장, 나아가 일본적 입장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의 일본비평은 일본문화에 대한 애정에 집착하여 일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해석을 문화적 관점에서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 그의 일본비평은 타협할 수 없는 내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許憲國, 2007). 그래서 1920년대 중국의 반제국주의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는 배일 감정도 강했다.

주작인은 1937년 <일본의 관규지견4 (日本管窺)>에서 극도의 모순된 마음가짐과 일본 문화의 입장에 대한 인정과 정치적 입장에 대한 배척 사이의 모순을 나타냈다. 그 모순의 원인을 찾으려는 자신이 인정한 것은 일본 민족의 고급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소수의 현명한 자임을 지적한 것이다.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자와 군벌과 자본가의 손에 쥐어진 일본 정부는 가증스럽다고 생각했다. 주작인은 자신의 문화적 입장의 독립성과 정치적 입장 사이의 모순성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

했다. 자신의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을 대립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즉, 일본문화예술의 대표자와 일본제국주의의 대표자는 각각 일본의 상위사상계가 중국의 유가와 인도의 불교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반동우파와 제국주의의 정신적 신앙은 신도교였다. 그는 자신이 비판해 온 일본 반동우파들이 믿는 신도교에 화살을 돌렸다. 그 동안 주작인의 정치적 입장은 문화적 입장과 대립, 일본의 정치적 입장을 배격하는 것이었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1930년대 주작인은 일본의 정치적 입장을 혹독하게 비판하지 않고 온화한 문화 고찰로 대체했다. 주작인이 문화 고찰을 이용해 일본의 침략 행위의 누명을 벗으려 한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일본에 대한 그의 정치적 입장과 문화적 입장을 모호하게 하고, 그의 정치적 입장의 전환으로 문화적 입장도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일부 주작인의 일본 연구 문제를 놓고 연구자들에게 “배일”이 아닌 “친일”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배일”과 “친일”이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다. 주작인은 <일본의 관규지견3 (日本管窺)>에서 친일이란 정치보다는 일본 문화에 가까운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배일(排日)”은 일제의 침략에 대한 배척이다. 문화와 정치를 분리해서 본다면, 주작인은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나타냈다.

본 연구는 주작인의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을 시간적 선후로 분리하여 연구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1919년부터 1937년까지 일본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을 취했고, 정치적 입장은 일본을 배척하였다. 이 시기 주작인은 일본 문화에 대한 자신의 연구 중 주관성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즉 그는 일본 문화를 고찰하면서 중일 문화에서 서로 다른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을 찾고, 비슷한 부분에서 차이점을 찾지 않았다.⁴³⁾ 일본은 중국 고대로부터 문화를 흡수하여 수천년의 발전을 거쳐 새로운 문화가 생겨난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서로 다른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을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방식이다. 주작인은 일본 문화와 친해지려는 자신의 연구 방식을 자기비판했다.⁴⁴⁾ 이런

43) 일본 문화는 중국 당나라 때 기원, 중국 고대 문화를 보존한 부분이 바로 중일 문화와 비슷한 부분이고, 차이 부분은 일본 스스로 발전시킨 민족문화와 종교적 신앙이다.

44) 1937년 주작인이 <일본의 관규지견 4(日本管窺)>, 자신의 일본문화에 대한 고찰이 양국간의 비슷한 부분만을 찾아내고, 중일문화의 차이부분을 찾아내지 않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연구 방식이라고 표현하였다.

자기반성과 비판 끝에 그는 일본의 문화와 정치 간 갈등의 원인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모순성의 근본 원인을 일본 상층 문화사상계와 제국주의 및 우익 반동파의 신앙이 다른 데로 돌렸다. 그래서 그는 1937년 일본에 대한 자신의 문화적 입장과 정치적 입장을 분리했다.

1940년부터 1943년까지 문화적인 입장은 여전히 독립을 유지했지만, 1940년부터 주작인은 왕징웨이(汪精衛)의 괴뢰정부에서 고문직을 맡았다. 1942년에도 대동아전쟁을 위한 이른바 "대동아 공존공영"을 선전했다. 당시 일본은 태평양전쟁에서 계속 패퇴했고 주작인의 일본 문화 독립성 입장은 갈수록 고립무원이 되었다. 시마자키 후지무라처럼 일본 고급문화를 대표하는 작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주작인의 마음속 외로움과 공포감을 자극할 정도였다. 정치적 입장이 친일로 바뀌어도 말이다. 문화적 입장은 여전히 중국과 일본이 문화 교류와 발전에 있어서 수나라와 당나라 시절처럼 순수하게 교류하고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의 교류와 발전도 평화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했고, 이러한 모순성은 주작인을 후세에 시대의 "반역자와 은사"로 평가하게 했다.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주작인의 신문 활동을 연구함으로써 주작인이 언론에 포함시킨 함축적 사상을 보았다. 주작인은 신문을 통해 일본 문화에 대한 사상의 인식을 전했다. 그는 일본 문화를 연구한 결과 일본이 중국 고대 문화 전승과 서양 문화를 융합해 새로운 매력적인 민족 문화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일본 문화를 연구한 결과, 일본 문화가 중국 근대 문화 발전에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신문을 통해 당시 진보적 지식인과 청년들에게 이러한 문화사상의 함축적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아시아의 문화와 문화교류의 발전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일본 문화에 대한 인정에는 주작인의 문화관과 정치관이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문화가 정치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그 사이의 모순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주작인 신문 연구는 주작인의 언론 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미지 묘사가 문학가, 사상가에서 언론인으로 확

장되어 주작인의 연구의 다원화 폭을 넓히고 주작인의 연구에 더 많은 연구 시각을 제공한다.

이 글은 주작인이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신문에 게재한 1,515편 중 일본 관련 기사 31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신문의 발표 시간 간격이 길고, 발표된 글은 여러 신문에 분포되어 있어 자료 수집의 범위가 넓다. 자료 수집 측면에서 제한된 인력으로 인해 연구 대상자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의 읽기 및 분석이 어려운 문제이다. 각 편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백화문이 아니어서 독해할 때 비교적 어렵다. 또한 일부 글에 인용된 고전은 중국 고대의 문언문(文言文)으로, 이는 독해와 이해에 더욱 난이도를 더해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 대상자가 수집한 31편의 글은 편마다 분량이 다르다. 짧은 것은 몇 백 자, 긴 것은 4천여 자나 된다. 이러한 기사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연구 대상의 양적 프레임 분석이 불가능하며, 연구자의 이해와 분석에 의해서만 연구가 이루어졌다.

주작인이 신문에 드러낸 일본 문화관은 동아시아 문화의 교류와 발전에 참고 가치를 제공했다. 주작인이 일본에 대해 알고 있는 연구의 한계점에 따라 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향후 연구는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의 근대 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 연구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동아시아 문화가 근대 서양 문화를 흡수하고 융합해 새로운 문화를 탄생시킨 역사적 혁신이다. 근대 동아시아 문화 발전의 풍향계이다.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를 시대적 배경으로 당시의 근대 지식인들이 언론활동에 담고 있는 일본 문화사상의 함축된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 다양한 국적의 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한 것도 의미 있는 연구이다. 동아시아 문화의 근대적 발전과 문화교류의 다원화는 주작인 시대의 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연구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미정(2001). 주작인(周作人)과 일본(日本), 중국문학.2001.36권. 251-272
- 천대진(千大珍2012). 한국 내 周作人 연구, 중국학(구중국어문론집) 2012, 81-110
- 천진(2011). 문화 기억을 둘러싼 문학의 길항 — 1920년대 초 《어사(語絲)》 시기 노신(魯迅)·주작인(周作人)의 장소기억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2011. 68권, 43-63
- 황선미(2013). 주작인(周作人) 「정조론(貞操論)」에 의해 재조명된 근대 여성 담론 - 신청년(新靑年)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2013. 55-127
- 黃開發(2004). 周作人的文學觀与功利主義,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04(03) , 241-257
- 黃開發(2011). 最近數十年周作人研究 魯迅研究月刊 上·2011(3)
- 黃開發(2011). 最近數十年周作人研究 魯迅研究月刊 下·2011(4)
- 孫郁(2001). 当代文學中的周作人傳統, 当代作家評論 2001(04) , 7-14
- 胡有清(1997). 二三十年代周作人文學思想論析, 南京大學學報 (哲學, 人文科學, 社會科學版) , 1997(02)
- 金紅(1998). 周作人文學觀發展變化論析, 遼寧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1998(02) , 84-87
- 張森(2012). 論1930年代周作人的文學觀, 中國文學研究, 2012(03) , 95-98
- 歐陽哲生(2009). 《新靑年》編輯演變之歷史考辨-以1920-1921年同人書信爲中心的探討, 歷史研究 2009(03) , , 82-104
- 趙稀方(2013). 《新靑年》的文學翻譯, 中國翻譯, 2013, 34(01) ,38-44
- 劉虜斌(1989). 論《新靑年》的翻譯文學, 山東師大學報 (社會科學版) 1989(06) , 87-91
- 袁滢珍(2015). 《新靑年》視野中的周作人人道主義文學觀, 知与行, 2015(01) , 151-154
- 王黎君(2010). 《新靑年》与中國現代兒童文學的發生, 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 2010(05) , 167-176
- 陳方競(2011). 《新靑年》“女子問題”討論的“一波三折”, 福建論壇 (人文社會科學版) , 2011(07), 99-103
- 張鐵榮(2019). 周氏兄弟在《新靑年》開創的“三个第一”, 群言, 2019(07) , 49-51
- 何玲華(2004). 《新靑年》中的周作人, 天府新論, 2004(02) , 113-116
- 許憲國(2006). 論周作人對日立場的演變, 南京工業職業技術學院學報 2006(01) , 39-43
- 汪注(2010). 周作人對日態度的轉變-兼談周氏對日本文化的偏執化認同, 江西廣播電視大學學報 2010, 48(04) , 54-56

于小植(2009).重菊輕劍,談周作人對日本文化的摯愛以及批判意識的缺失,魯迅研究月刊,2009(06),72-77

木山英雄,劉軍(2003).周作人与日本,魯迅研究月刊,2003(09),85-89

劉偉,柴紅梅(2003).周作人的日本文化論,沈陽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3(06),37-41

孫良好,孫鵬程(2014).周作人筆下的日本形象,中國比較文學2014(01),108-118

孔凡玲(1987).留日學生對中國近代文化的貢獻,齊魯學刊,1987(06)

蔣保(2005).周作人之希臘文化觀,歷史教學問題,2005(05)

董炳月(2000).周作人的“國家”与“文化”,中國現代文學研究叢刊,2000(03)

裴亞蒙(2022).周作人飲食散文的趣味,文學教育(上)2022(10)

張翔,吳萍莉(2019).周作人筆下的日本相模屋書店,上海魯迅研究,2019(04)

沈倩(2022).周作人早期文學批評觀念及方法論的研究,遼寧大學,2022(04)

許憲國(2007).論周作人日本批評的內在矛盾,北京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7(01)

袁良駿(2011).周作人附逆考辯,南通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1,27(02)

Abstract

Modern Chinese Intellectual Zhou Zuoren's Awareness of Japan: Centering on Media Contributions

WANG WEIWEI

Department of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Through the Meiji Restoration, Japan quickly advanced from a feudal underdeveloped country to a historical advancement of modernization and emerged as Asia's No. 1 powerhouse at the time. Since then, a larg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from East Asian countries have flocked to Japan, and Zhou Zuoren's have been active as Chinese students in the early days after the Japanese Meiji Restoration. At that time, the situation of Japan in various fields, such as culture, politics, and life, can be seen through the writings of Zhou Zuoren's, and there is a lot of research and reference value in the exchange and development of modern East Asian culture. Second, according to research, the early media activities of the main writers were relatively active. The main writers participated in the editing of the "Xin Qing Nian (新青年)" during the "5.4th Newspaper Movement" and did some media activities, such as launching the "Yu Si(語絲)" week with Lin Yu Tang(林語堂). However, there is no research on the main writers' media activities. Finally, in Zhou Zuoren's pro-Japanese research, the author discovered that there was a problem of blur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Zhou Zuoren's position on Japanese culture and political position. Therefore, this article studied Zhou Zuoren's perception of Japanese culture, food, clothing, shelter, and Japanese language education by collecting Japanese-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Zhou Zuoren newspapers from 1908 to 1945.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as a result of dividing 123's cultural and political positions on Japan into chronological order.

Poetry is universal in Japan, and its shortness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poetry, and because it is extremely short, the people can even compose poetry. Japanese poetry, like horses, has a unified and harmonious beauty because of its simple harmony in the Japanese language. Although it does not compose a short, grammatically complete sentence, Japanese haiku is intended to express meaning other than the language of poetry. Japan created this humorous and interesting style on its own with a novel style unique to Japan. Japanese literary works can feel their beauty when they appreciate the original text, but translating Japanese literature is extremely difficult because their original characteristics and beauty disappear when translated into Chinese. Ukiyoe originated from ancient China but developed into Japan's own painting art, and its characteristic is that it expresses a colorful and mainly common culture.

Perception of life is expressed in memories of living in Tokyo and feelings about Japanese food, clothing, shelter, and shelter. From a cultural point of view, the perception of life in Japa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es are harmonious and positive. Lastly, in the case of Japanese language education, he recommended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department with Japanese as a second language for Chinese and argued that studying in Japan should be encouraged. Zhou Zuoren's affirmation of Japanese culture also makes his attitude toward studying Japanese seem positive and encouraging.

This study took a positive and independent position on Japanese culture from 1919 to 1937 and rejected the political position on Japa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by separating the cultural and political positions of Zhou

Zuoren into time before and after. In 1937, he separated his cultural and political positions on Japan. From 1940 to 1943, the cultural position still maintained independence, but even if the political position changed to pro-Japanese in 1940.

The results of Zhou Zuoren's research on Japanese culture are meaningful in that Japanese culture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development of modern Chinese culture. Through the newspaper, Zhou Zuoren implicitly conveyed his view of Japanese culture to progressive intellectuals and young people at the time and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Asian culture and cultural exchange. In this recognition of Japanese culture, Zhou Zuoren's view of culture and politics are implicitly expressed, and it shows the contradictory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e's inability to escape from the plight of politics. This study broadens the diversification of Zhou Zuoren studies with Zhou Zuoren's media activities as the main subject of research and provides more research perspective on Zhou Zuoren's research.

Future research is expected to expand to research on the perception of modern intellectuals in East Asia such as China and Korea about Japa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Japanese cultural ideas contained in the media activities of modern intellectuals of the tim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times after the Japanese Meiji Restoration. The modern development of East Asian culture and diversification of cultural exchanges are not only studies that scholars in the Zhou Zuoren era are interested in, but are important research tasks in the future.

Keywords: a modern intellectual, Japanese culture, pro-Japanese, Meiji Restoration, "Xin Qing Nian (新青年) "